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때  
역해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  
으로 진리에 굳게 서서 세상을 밝히는 빛  
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으로 많  
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  
까움을 불수룩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25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3월 3일 (토) 제 167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교회 가지 않는 크리스천은 불가능!

## CT, “넌스” 들에게 왜 교회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지 역설

미국에서 교회를 가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부쩍 늘었다.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그만둔 상태지만 타 종교로도 가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히(?)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명 ‘넌스(nones)’, 한국적으로는 ‘가나안 성도’다. ‘교회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된다고 해서 가나안 성도라 부른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도권을 거부하고 자신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서구에서는 ‘소속되지 않은 신앙’이란 개념으로 일찍부터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영상도 찾아보고, 찬양도 듣는다. 왜 말 많고 위선자들만 가득한 교회에 가서 상처받을 필요가 있냐? 고 반문하기도 한다.

“넌스” 현상은 비단 미국교회와 한국교회만의 현상이 아니다. 이미 20년 전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 영국의 종교 사회학자인 그레이스 데이비(Grace Davie)는 영국에서 교인 수가 감소하는 것을 기독교의 쇠퇴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주

장했다.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국교이고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천이지만,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흔히 알려졌듯이 거대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 주일에도 텅텅 비고 일부는 식당이나 술집으로 바뀌었을 정도다. 그러나 이렇게 세속화한 영국에서도 놀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대다수는 확신은 없어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 고정 필자인 팀 스태포드(Tim Stafford)는 일찍이 교회공동체와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The Church-Why Bother? There is no healthy relationship with Jesus without a relationship to the church). 물론 교회에서 상처받아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을 정의하는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대세인 현 상황에서, 그의 지적은 한결 같이 온당하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한 사내가 20년 동안 무인도에서 지내다가 구출됐다. 구조대는 이 사람이 손수 지은 훌륭한 건물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저 아름다운 건물은 뭐가요?” “제 집입니다.” 사내가 대답했다.

“저기 저 첨탑이 있는 건물은요?” “그건 제가 다니는 교회지요.”

“잠깐만요! 첨탑이 있는 저 건물은요, 저건 또 뭐가요?” “아, 그건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예요.”

이 우스갯소리는 오늘날 교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 교인이 자기 한 사람뿐이라도 교회를 떠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틴 루터 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확고부동한 무게 중심이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에 권위를 행사했다.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며, 은혜의 방편을 제공했다.

3세기 북아프리카의 주요 키프리아누스(Cyprianus)는 교리적으로는 정통파이지만 분파주의자였던 노바티아누스(Novatianus) 주교에 대해 이렇게 썼다. “그는 교회 밖에서 가르쳤으므로 나는 그의 가르침에 관심



교회공동체를 떠나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구원받은 자는 교회를 떠날 수 없다

이 없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지 않으니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그는 교회를 어머니 삼지

않으니, 하나님을 아버지 삼을 수 없다.”

<3면으로 계속>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1973년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통역을 한 김장환 목사

## 현대 복음주의 리더, 20세기 최고의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 별세

20세기를 대표하는 목회자이자 복음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사진) 목사가 지난 21일 99세로 별세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위대한 목회자의 퇴장이다.

CNN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그레이엄 목사의 대변인은 그레이엄 목

을 전달한 ‘멘토’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밋 롬니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몰몬교)는 이단이 아니라고 표명해 미국 기독교계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1918년 11월 7일

향년 99세...2억명에 복음 전해  
미 역대 대통령들의 영적 멘토  
1973년 서울서 110만명 부흥회  
2005년 마지막 뉴욕집회엔 한인교계 동참

사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시골마을 몬트리트의 자택에서 이날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목사는 전립선암과 파킨슨병 등을 앓아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미국의 여러 역대 대통령들은 물론 다양한 국가의 정상들에게도 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조언

을 받았다. 40년 플로리다 성경대학을 졸업하고 남침례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43년 일리노이 주 휘트대학을 졸업한 후 웨스턴프링스제일침례교회 목사로 시무하면서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다. 국제침례교(YFC)에 참가하면서 전도활동을 시작했다. <16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p>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p> <p>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라인)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p>	<p>ATS 정회원</p> <p>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p> <p>www.wmu.edu</p>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inck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핸드폰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qospelmail@hotmail.com

<p>시론 김풍운 목사</p> <p>2면</p>	<p>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p> <p>7면</p>	<p>청교도신앙 이운석 목사</p> <p>8면</p>	<p>특별기고 전호진 박사</p> <p>14면</p>
----------------------------	------------------------------------	-------------------------------	-------------------------------

"목회자가 든든히 서 가면 교회도 든든히 서 갑니다"

# 복음의 본질회복과 생명의 영성

## 2018년도 국제목회자아카데미 집중세미나(MIS)

▶ 본 세미나는 모든 복음사역자들에게 복음의 본질과 생명의 영성, 그리고 복음사역의 성경적 방향을 제공합니다.

목적: 1. 생명의 영성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기 위하여(딤후 6:11)  
2.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생명넘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골 1:25)  
3.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끄는 능력있는 복음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롬 8:2)

핵심내용:

1. 복음의 본질	2. 성경이 말하는 구원	3. 거듭남의 비밀
4. 은혜와 믿음	5. 신분과 실제	6. 옛사람 처리
7. 자아 처리	8. 율법과 복음	9. 옛언약과 새언약
10. 생명의 성령의 법	11.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법	12. 믿는자의 권세
13. 재림신앙	14. 결연의 시간	15. 독대기도
16. 전도와 기초양육	17. 재생산 제자사역	18. 목회자의 리더십
19. 목회자의 성품과 언어	20. 예배회복과 설교사역	21. 건강한 교회 세우기

일정: 2018년(3월~12월) 매월 첫 주일 저녁 (월~수) 3일간 오전10:30~오후4:00  
※ 11월은 해외집회 및 세미나

장소: 분당크리스천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90번길 32, 웰파크 519호)  
· 지하철: 분당 미금역 4번출구 직진70m, 좌회전50m 푸른색 5층빌딩 519호

참석대상: 국내외 목회자, 사모, 선교사, 복음사역자  
참석인원: 매월 등록신청순 30명(교재 제공, 점심은 각자)  
등록절차: 참석 시기를 정하고 미리 전화, 또는 E-Mail로 등록신청(등록비 없음)  
▶ E-Mail로 신청시: 성명, 직분, 전화번호, 거주지역, 참석시기 등 기록

2018 가을철 장영출 목사 미국순회집회 예정

▶ 기 간: 2018. 10. 12(금)부터 11. 25(주일)까지  
▶ 연락처: 미국 - 월드미션센터 (215-771-9191)  
한국 - 예수제자선교회 장영출 목사 (82-10-3890-0051)

주강사 장영출 목사

- 공군사관학교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미국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졸업
- 미국 서던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졸업
- 철학박사 신학박사
- 공군군종감 역임
- 예수제자선교회 회장
- 국제목회자아카데미 대표
- 분당크리스천센터 원장
- 「복음의 본질과 생명의 영성」저자

▶ 홈페이지 jmission.org에서 자세한 안내와 복음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안내 · 등록 : 한국 ☎ 010-4104-7884(총무) E-Mail : jbm3927@gmail.com

예수제자선교회 · 국제목회자아카데미



# 험난한 여정 속...하나님은 같이 하셨다!

## CT, 목회자로 무슬림 선교하는 이란 난민 여성 소개

“아리프가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와 간증을 하고 있는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화가 나 있는 것이 분명했다. 증오심으로 그의 두 눈을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그의 긴 수염도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예수 믿는 한 여자가 무슬림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는 것에 격분해 있었다. 그런데 단 몇 초 만에 아리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자연적인 조치를 취하시리라도 한 듯 그 자리에 벌렁 나자 빠졌다(내가 무슬림들 앞에서 간증할 때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아리프는 무너져 내리면서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 이제 그가 이슬람에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었다. 내가 할 일은 다만 그의

곁에서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게 되는 여정이 마치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의 길처럼 급작스럽고 극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얻기까지의 여정이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여정과 같다. 그런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숨쉬는 공기보다 더 가깝다는 것을 서서히 알아간다. 내 여정이 바로 그러했다(An Iranian Refugee's Terrible Journey to God: I survived snowy mountains, a filthy prison, and an abusive husband. Then I discovered who had protected me all alone).

나는 이란에서 태어났다. 아 름답고 평화로웠던 이란이다. 내 삶은 행복했다.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아들 다니엘을 낳으면서 더욱더 행복해졌다. 나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새로 태어난 아기를 애지중지 할 때, 내 나이 열여덟 살이었다. 이슬람 혁명가들이 내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사실이 내 삶의 기쁨을 덜어내지는 못했다. 삶이 완벽하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나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곧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다.

나를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몇 시간 후, 우리가 터키 경찰에게 구금된 상태에서 화투불가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온몸으로 느꼈다. 목사나가 살아 있었다.

을 수 없는 곳에 성경을 숨겼다. 그리고 남편이 내 몸에 멍이 들 고 염증이 생길 정도로 나를 때렸을 때, 나는 다시 무엇인가에 이끌려 성경을 찾게 됐다. 나와 같은 무슬림에게는 이상한 행동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한결 평

그 답을 얻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 죽어가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나는 이란으로 돌아갔다. 나는 문제를 피하고 싶었으나, 그만 이란 정권과 얽히고 말았다. 당국은 내가 왜 이란을 떠났는지 의심했다. 내가 도피한 이유에 대해 사실대로 말했다가 다시 교도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3개월간 법정 심리와 인터뷰가 이어졌고, 나는 판결을 기다리며 판사 앞에 섰다. 아무런 힘도 어찌할 도리도 없는 나는 오로지 모든 상황에서 함께하셨던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나를 이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내 삶을 그리스도에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다.



안나히타 파산 목사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나를 대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울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던 그 판사가 자비를 베풀어 나를 풀어주었다. 바로 그 다음 날, 나는 스웨덴으로 떠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고, 나를 안전한 집으로 데려다주신 것이다. 그날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됐다.

다니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죽음이 도둑처럼 찾아왔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남식간에 내 삶에서 기쁨이 사라졌다. 나는 충격을 받았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내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다. 나는 물었다. 제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가적이었다. 지저분한 터키 교도소에 갇혀 4개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내 함께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리고 생면부지의 한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을 손길을 보낸 그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 그 사람은 한 때 우리와 함께 수감됐던 사업가인데, 국제 엠네스티를 통해 우리의 석방을 도와 주었다.

경찰의 도움으로 마침내 나는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내 아이들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주조치 됐고, 거기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비상 쉼터를 제공 받았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들의 사랑을 통해 수녀님들의 이야기와 찬양을 듣고 있을 때,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깨어났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현재 나는 수많은 무슬림들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스웨덴 교회에서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각처에서 한때 알리를 따랐던 사람들의 꿈과 환상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일하신다.  
(3면으로 계속)

고통이 얼마간 가라앉자 나는 다니엘에게 전념했다. 그리고 재혼했다. 그러나 첫날밤부터 새 남편은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본성을 드러냈다. 내 삶은 다시금 고통과 슬픔에 빠졌다. 이번에는 그 끝조차 보이지 않았다. 딸 목사나를 낳았다. 그러나 남편의 매질은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은 이란 정부와 문제가 생겨 산을 넘고 넘어 터키로 피신하게 됐다. 나도 그를 따라나설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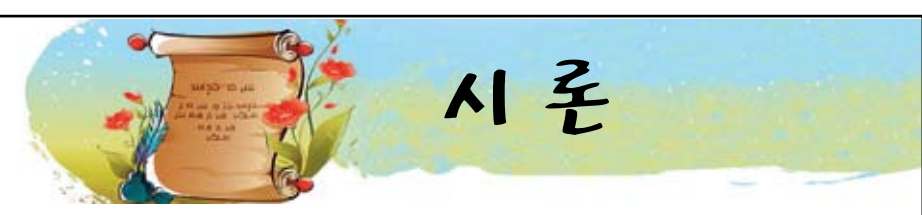
그리고 내가 터키를 벗어나자 곧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당신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내 아파트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길 원했다. 그러나 나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 그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다음 날 다시 와서 내게 성경을 건넸다. 내 머리는 그 성경을 치워버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그것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남편이 찾

온해졌다.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었고, 나는 하나님께 입을 열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끔찍한 길이었다. 우리는 눈 장비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고, 곧 내 손가락과 입과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 새까맣아졌다. 그러다가 목사나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속으로 하나님께 물었다. 왜 이런 식으로 제게 벌을 주시나요?

나는 축 처진 아이의 작은 몸을 두 팔로 꼭 끌어안은 채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대로 죽고 싶었다. 그때는 하나

나를 축 처진 아이의 작은 몸을 두 팔로 꼭 끌어안은 채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대로 죽고 싶었다. 그때는 하나



## 시론

### 자만하지도 낙심하지도 맙시다



김봉운 목사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지난 2월 4일(주일) 저녁에 제 52회 수퍼볼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팀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글스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여서 목요일에 시내에서 있었던 퍼레이드에는 약 200만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상을 뒤엎은 게임이었습니다. 이글스가 필자의 고장팀이므로 게임을 보며 열심히 응원하였습니다. 항상 게임의 뒷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번 이글스팀의 승리 뒤에는 쿼터백 Nick Foles에 관한 이야기가 필자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본래 이글스팀 3라운드에 선발되어 빛을 보지 못하다가 다른 팀들을 돌아서 다시 이글스에 오게 되었지만 이선에서 뛰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글스팀이 챔피언전에 오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주전 쿼터백이 갑자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대신 뛰었는데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게임을 이끌었습니다. 유명한 Tom Brady를 제치고 MVP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슬럼프에 빠져서 풋볼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었다는 그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참으로 축하할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에 관한 기사들을 참고해보니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믿음이 좋은 팀 동료들은 모두 그의 신앙과 삶을 칭찬하였습니다.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 크리스천 쿼터백인 그는 은퇴 후에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결코 내일 일을 모르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글스팀의 주전 쿼터백은 Carson Wentz라는 선수였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그가 Nick Foles보다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게임 중에 부상을 당하므로 모두들 이글스팀에 대하여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Nick 선수는 너무나 잘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어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데도. 여호와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데도”(삼상2:6-7). 한때 풋볼을 포기하려고 까지 생각했던 Nick을 하나님께서는 2018년 제 52회 수퍼볼에서 MVP가 되도록 그를 올리고 높이신 것입니다.

평장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 게임을 보며 과연 인간은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하고 자신만만하여도 자신의 내일을 결코 자신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올라가는 시점에 있다고 자만할 수 없으며 후시 내려가는 시점에 있다하여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들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4:13-14).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을 읽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성패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두 뉴잉글랜드의 Patriots팀이 이긴다고 예상했습니다. 쿼터백의 경력을 보아도 Nick Foles는 수퍼볼에서 무려 네 번이나 MVP였던 Tom Brady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선수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게임을 열고 보니 이글스팀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글스와 쿼터백 Nick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짐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찌기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데도”(시127:1-2). 인생을 운동경기에 비교한다면, 모두들 게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작년 수퍼볼에서는 Patriots팀이 거의 진 게임이었는데 막판에서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역전승하였고 그들은 그날 밤 파티하고 기쁘게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글스팀 선수들과 Nick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나누고 단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Nick과 이글스팀 선수들의 손을 들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운동경기와 같아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항상 이길 수 없고 또 항상 지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시간 속에 바라시는 뜻을 경허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였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전 7:13-14).

pwkim529@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865-0009(대 표) (323) 865-9025(광고국)  
Fax: (323) 865-0056(편집국) (323) 8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대표) (718) 886-4424(편집국)  
Fax: (718) 886-0074(대표)  
E-mail: nyc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 Ph.D. in Leadership

## 사역 리더십 박사학위 과정

**MBA.**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Global Leadership 글로벌 리더십 / Global Business 글로벌 비즈니스 Asset/ Investment Management, 투자, 부동산투자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Doctor of Leadership**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Organizational/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 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서류심사, 이수 에세이, 일반상식, 면접

**Ph.D. in Leadership** 이수학점: 60 Credit Hours

Organizational /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 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 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서류심사, 이수 에세이, 일반상식, 영어시험, 면접

**Certificate Programs** 1년 과정

1. Ministry Leadership- 전도사, 신학생, 권사, 장로, 부목사 등.
2. Pastoral Leadership- 현, 담임목사

위 과정은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과 Midwest University 에서 수료증 수여함

목회자 리더십 과정은 최고의 교수진을 통해 각지역별 특강과 프로젝트에 참여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자간 네트워크, 사역협력과 친선 및 미래사역 개발, 선교협력을 하게되는 과정입니다.

\*목회 리더십에 대한 강의와 연구, 모델 사역현장 답사,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한 폭넓은 사역에 도전.

**학위 취득방법 & 인증기관**

**학위, 학점 취득방법**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 2) 직장, 사역을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강, 온라인으로 학점취득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4) M.Div 졸업자는 미국 재단법인 IEA 로 부터 목사안수 가능

Midwest University 는 미 국무부가 지정한 J-1, J-2 Visa Sponsor

**인증기관**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증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0

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홈페이지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 교회 가지 않는 크리스천은 불가능!

(1면에서 계속)  
한마디로, 키프리아누스의 관점-“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슬로건으로 요약할 수 있다-은 이후 수 세기에 걸쳐 교회가 이단이나 분파에 맞설 때 큰 힘을 얻었고, 보편적인 기준이 됐다. 사람들은 교회 안, 곧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거나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둘 중 하나였다.

루터에게 이런 무게 중심을 옮기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정화하기 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의 제기는 분파주의를 낳았다. 루터교 이후에 칼빈주의가 등장했고, 재세례파도 곧 나타났다. 감리교와 침례교도 등장했다. 일단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자, 이런 흐름을 멈추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2만 개의 교회가 생겨났다.

나는 보노(Bono, 2005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선정된 정도로 “노래하는 성자”라 불리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락밴드 가수)를 비롯해 교회에 가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혹독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교회가 항상 좋지만 한 곳은 아니지 않은가. 일부 교부들은 반대파를 진압하고 권력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규칙을 두려워하며 준수하려는 사람들을 약화해, 교회에 헌신 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물론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크리스천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아주 확인한 문제, 또 어떤 이들은 상당한 미묘해서 다른 사람에 알아차리기 힘든 문제로 상처를 받는다(The Church's Walking Wounded). 제도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천성적으로 고독한 사람들도 있다. 내 친구 던킨도 그런 사람이다. 그는 사람보다 기계와 더 친한 엔지니어이다. 그러나 그는 이혼하면서 교회에서 의지할 곳을 찾게 됐다.

필립 안시는 체스터턴(G. K. Chesterton)에서부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 덕분에 자신이 살아 있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고백한다. 그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마하트마 간디 한 사람

을 제외하고는 모두 크리스천이며, 대부분 충성된 교인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야 우리 믿음이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안시의 문제는 크리스천의 총합이라 정의된 그런 교회에 있지 않았다. 그는 실제로 교인들 사이에서 체험한 것과 씨름했다. 그는 신앙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다른 크리스천들이 필요했다. 그들만이 그의 신앙을 교회에서 살아남게 해서 그를 다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유일한 방법이었다.

우리는 제도 교회와 동떨어진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에 대한 현실을 멀리함으로써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질문은 난이도가 높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할 리는 없다. 대형 서점마다 성경이 즐비하다. 심지어 모든 크리스천이 다 휴거된다 해도, 성경 출판은 계속 혹자를 볼 것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는 훌륭한 설교가 나온다. 책과 잡지도 넘쳐난다.

-교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대화방과 성경공부 모임 일색이다. 인터넷 기도 후원 모임에서는 실제로 만나는 기도 모임보다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중보가 이뤄진다고 친구들은 말한다.

-예배? 음악 CD에서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도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영감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 어쨌거나, 당신에게 예배가 필요하다면 아무 대형 교회나 쏙 들어가서 영혼은 성가시게 하지 않은 채 일을 보고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 세례와 성찬식을 제외하면 당신에게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다. 게다가 성례전마저도 아무 의미 없는 소모품에 불과한 교회도 많다.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겠다. 교회의 제자 훈련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마찬가지로. 교회가 영혼을 정화하는 기본 좋은 교훈을 주리라고 기대했다

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대를 접는 편이 낫겠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해도, 지역 교회에 대한 헌신적인 참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이유들이 있다.

성례전이나 성찬식은 임의적인 선택 사항이 아니다. 21세기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성례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아주 많다. 성례전은 인간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진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마3:15)라고 말씀하셨다.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은 “반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마26:26) 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들이 성례전의 가치를 이전보다 하찮게 평가하고 있는지 몰라도, 여전히 성례전을 행하고 있다. 교회 이외에 성례전을 행하는 곳은 없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다고 하면서도...그분의 모범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규칙적인 공동 예배의 리듬이 필요하다. 이 리듬은 제자들이 한 주간의 첫 날 모이는 것에서 시작됐다. 하트(D. G. Hart)는 개혁주의 예전 전통을 언급하면서 “당신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매주 확인하는 것은 엄청난 위안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보다 모임 횟수가 줄어든다면, 인생의 큰 위기들을 통과해 나가는 우리가 지탱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 말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원격 회의가 함께 만나서 진행되는 회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마찬가지로, CD를 틀어 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 설교를 듣건, 기도를 하건, 찬양을 부르건,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살아 있는 물리적 실재를 만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우리 본성을 자극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 말씀을 기록했었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불수록, 더욱 힘써 모입니다”(히10:24-25 참조). 격려하려면 대상, 즉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몸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다. 사도 바울이 분란이 있는 고린도교회에게 썼듯이(고전12:21),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하지 못하리라.” 그분의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이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총합이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몸의 유비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형태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 가능하다는 바울의 신념을 표현한다.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드러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이 몸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겨야 한다. 몸에서 떨어져 나온 지체는 분명 쓸모없고, 곧 생명을 잃는다. 홀로 떨어진 지체는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다.

결국 사람들에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권하는 것은 위험한 충고다. 바울이 어떤 도시에 도착했는데, 그 지역 교회가 땅에 들지 않는다고 거기 가지 않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바울에게 교회가 없는 크리스천은 가족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혈육과 다룰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떠날 수는 없다. 자신의 삶과 피나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교회도 똑같다. 더구나, 교회는 예수님의 삶과 피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은 공동 생활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분의 백성들(분명 복수형이다)을 위한 것이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는 교회에 속한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한다. 성경은 다른 크리스천들과 동떨어진 개인의 존재는 알지 못한다!

을 이끄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나에게 오라.” 그들을 부르고 또 부르실 것이다. 그들은 “예”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된다.

-안나히타 파산(Annahita Parsan)은 스웨덴 교회에서 안수 받은 목회자이며, 자신의 신앙 여정을 담은 책 (Stranger No More: A Muslim Refugee's Harrowing Escape, Miraculous Rescue, and the Quiet Call of Jesus)의 저자로, 이란 난민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다.

# 소망 칼럼

## 참된 성공자가 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욕망의 하나가 성공이다. 사람이 성공의 욕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기주의나 욕심이 나쁜 것이지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성취해야 할 참된 성공은 무엇인가? 성공이란 어떤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성공의 고지에 올랐지만 그 성공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무슨 값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일과 쾌락만 누린다면 사실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인 것이다. 참된 성공자는 성공한 다음에 값진 일을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복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것이다. 참된 성공자가 되려면 영적인 성공부터 해야 한다.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고 말씀하셨다. 요한삼서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잠잠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하였다. 인간의 참된 성공은 부자되고 명예를 얻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 부자는 세상의 모든 재물과 권력을 다 가지고 물질적인 부와 명예를 한 몸에서 지니고 날마다 주지육림 속에 쾌락만 누리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갔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갔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세상에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고 있다. 사람의 진정한 성공은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의 성공이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2:17)고 말씀했다.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람은 모두 같은 재능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재능을 가졌어도 최선을 다하면 성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고 했다.영국에 유명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찬송을 부르며 일했다. 그는 참 행복하게 살았으며 돈도 잘 벌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사람의 구두를 고치지마는 예수님의 구두를 고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잘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라고 했다.존 D. 록펠러(John D. Rockefeller)는 말하기를 “성공의 비결은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는데 있다”고 했다. 닥터 보브 조우스(Dr. Bob Joues)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였다. 성공은 최선을 다한 결과인 것이다. ‘성공’이란 말은 성경에 꼭 한 번 사용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다. 시편 1편에는 성공이란 말은 쓰지 않았으나 3절에 “그 행사가(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리라”는 말씀은 성공이란 뜻이다. 이 말씀들을 보면 성공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참된 성공자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nammicj@hanmail.net

# 힘난한 여정 속...하나님은 같이 하셨다!

(2면에서 계속)  
2년 전 여름, 뉴스에서 연일 그리스에 도착하기를 바라며 보트에 오르는 난민들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우리 교회로 찾아온 한 남성을 위해 그와 함께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의 이름은 피아즈였다. 그는 자기 아내와 두 딸이 터키의 해안에서 보트를 기다리고 있던 날 밤에 대해 내게 이야기 했다. 손전등 불빛이 약해지고,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는 강했다. 그는 작은 두 딸을 번쩍 안아

들면서 아내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보트가 해안에서 한참 멀어졌고, 그제야 피아즈는 아내가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내가 다른 보트를 타고 올 것이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보트가 육지에 닿자, 그는 미친 듯이 해안을 오르내리며 아내를 찾았다. 피아즈가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뒤였다. 그의 아내는 보트에 오르려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바다에 떨어졌고, 그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익사했다. 그

때 그녀의 나이는 스물 세 살이었다. “오직 하나님만 당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십자가 앞에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십시오.”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있던 고통을 그는 있는 그대로 큰 소리로 토해냈다. 전에 산 속에서 나에게 닥친 참담함에 분노하며 울부짖던 그 소리와 똑같았다. 그 다음 주에 피아즈와 그의 딸들은 우리 교회의 한 가정에 들어와 살게 됐다. 즉각적인 치유나 간단한 해결책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실 것이다.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

을 이끄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나에게 오라.” 그들을 부르고 또 부르실 것이다. 그들은 “예”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된다.

#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현수막 | 천막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프로모션 상품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X 배너 거치대

플래그

롤업배너

벽걸이 포스터

현수막

미디어벽

미디어벽

2018 교회표어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나는 포도나무에 새기는 가지라 고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리가 임부도 할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15:5)

Merry Christmas

성탄 축하예배

2017.12.31 주일 저녁 10시 30분 비전센터 본당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T. 877.922.6679

한국어. 714.367.3046

www.caravancanopy.com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기도로 중세의 철학 같은 어둠을 밝힌 사람(3) -베네딕토(Benedictus, 480-543)

인간은 항상 산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곤 한다. 특히 높은 산에 대한 외경심이 대단하고 그 산을 섬기기도 한다. 산은 항상 깊은 침묵으로 변장한 인생들을 아늑한 자신의 품으로 불러들이고 문명의 복잡함에 시달리는 인생들에게 단순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도록 교훈하고 있다.

어느 분은 말한다. 더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해 낮은 곳을 버리지 말라, 산은 내 안의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굴곡이 있다. 인생에도 수많은 굴곡이 있는 것처럼... 산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오르고 내려가다 보면 어느 사이 그 고비들은 극복된다.

또한 저 멀리 있는 산, 도무지 오르지 못할 것 같던 그 산들도 열심히 오르다 보면 앞이 탁 트이는 정상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정상에서 우리의 게을렀던 부분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정언'을 듣게 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영적 거성들은 누구랄 것 없이 산을 자주 찾았다. 아예 산을 사랑하여 일생을 그 산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도 많았다. 잠으로 산이란 인생에게 신비스런 장소가 아닐 수 없다.

로마에서 국도로 나폴리를 가기 위해서는 두 길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는 무솔리니가 건설한 나폴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원전에 만든 카실리나(Casilina) 국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기원전에 닦였고 2천년의 역사가 녹아 있는 국도가 훨씬 사람냄새를 맡을 수 있는 정감 있는 길이지 싶다. 로마의 역대 황제들 가운데 이 길을 이용하여 나폴리의 만의 카프리(Capri)섬에 있는 자신들의 별장을 부지런히 다니기도 했다. 특히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길에서 운명하기도 했고...

내비게이션에 카프라니카 프레네스티나(Capranica Prenestina)를 입력하고 카실리나 길을 따라가다가 왼편의 팔레스트리나(Palestrina) 안내판을 보고 들어가 직진으로 가다보면 팔레스티리나 마을을 통과하게 되는데, 오르막길에서 왼편으로 담벼락 같은 유적을 만나게 된다. 그 유적은 로마의 5천제 중 한 사람인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별장이다. 그리고 한참을 오르다 보면 이국도 카프라니카 정상에 오르게 된다.

해발 1018m로 이태리의 많은 산 중에 평범한 수준이지만 이 산은 로마 시내의 동편을 평풍처럼 감싸고 있는 산이다. 로마를 방문하는 사람이나 발을 디디었던 사람들은 동편을 감싸고 있는 이 산을 한두 번쯤은 바라보았을 것이다. 정상 바로 아래에 카프라니카 프레네스티나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작은 돌로 이루어진 성당이 있고 그 성당 설계를 바티칸 돔을 설계한 브라만테가 했다고 하니 이 마을 역시 아주 오

래된 마을이지 싶다. 요즘에는 자동차로 어려움 없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어떻게 이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까 싶다. 식량을 이곳까지 가져오려면 엄청난 힘들었겠고... 산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시 힘들지 싶다.

그 마을의 중앙에 있는 작은 로터리를 돌아 오른편으로 나 있는 길을 올라가다 보면 수려한 산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 산길, 결코 인적이 없는 호젓한 길을 한참 오르다보면 이국도 정상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뜻밖에 작은 마을을 만나게 된다. 로마 시내와 한눈에 시원스럽게 바라보이는 곳으로 가장 높은 곳이다. 주민이 한 백여 명 정도 살고 있을까 싶다. 왜 이리 높은 산에 과연 누가 처음 거주지를 정했을까 싶다. 이곳이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이니 그만큼 하나님께 가깝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을까?

거기서 뒤로 난 길을 조금 내려가면 아름다운 수도원을 만나게 된다. 지형이 마치도 밧 이어낸 건 축물처럼 정상의 바로 아래에 불쑥 튀어나온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수도원을 세웠다. 아주 수려하고 경관이 일품이다. 그 수도원의 이름은 Santuario della madonna delle Mentorella 이다. 이 수도원의 역사는 콘스탄틴 황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그 수도원의 뒷면은 거대한

바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입구가 좁아 정면으로는 안 되고 옆으로 몸을 틀고 들어갈 수 있는 굴이다. 인위적으로 뚫은 굴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성된 굴이다. 그 굴 왼편에는 네모난 철망을 만들어 이 수도원에서 수도하다가 죽은 수도사들의 해골들과 뼈들을 모아놓았다. 그리고 부활을 기다린다고 고전15장의 말씀을 기록했다. 너도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는 묵시적 교훈을 주는 것 같다.

굴 안으로 들어가면 제법 넓은 공간을 만나게 된다. 적어도 10-15명은 자리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이다. 그런데 이 굴은 의미가 있는데 즉 서방수도원의 창시자인 베네딕토(Benedictus 480-543)가 이곳에서 무려 2년 동안 머물면서 기도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되었고 이곳까지 왔을 까 싶다

일찍이 귀족 가문의 청년 베네딕토가 스무 살에 이태리 중부 도시 노르차(Norcia)에서 로마에 유학을 왔다. 그때 서로마는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케르(Odoacer, 435-493)에게 망하고 난 뒤였다. 천년동안의 찬란한 문명이 끝자도 모르는 용병대장에게 멸망을 당했으니 그 수치스러움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때였기에 젊은이들은 뭇 대로 되라는 식의 태도를 지향했고 쾌락이 하늘을 찌를 듯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베네딕토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겠다'는 의지로 성경 하나만을 들고 로마에서 65Km 떨어진 수비아코(Subiaco) 산에 들어갔다. 그 산에 장엄한 바위가 둘러있는데 그 바위중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거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에 전념했던 곳이 저 아래로 보인다. 베네딕토는 국가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직 이곳에서 기도로 전념했던 것이다. 그 거룩한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위굴이다. 이 바위굴은 고즈넉하게 동양에서 찾아온 길손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영적 선배 베네딕토가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속살을 수줍은 듯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교훈하고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한 사람의 기도는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햇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다. 끝으로 E. M. 바운즈의 기도에 대한 글을 소개하고 끝내려 한다. '웃을 만드는 것은 재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의 실패는 생활의 실패자다...' 그렇다면 당신은 기도하시는지요?

chiesadiroma@daum.net

### 푸/른/초/장

피종진 목사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총재)



밤이란 자기반성의 때이며 경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기 좋은 때이나, 불경건한 자나 악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만을 계획하며 행하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한편 밤이란 어둡고 답답한 세계를 말하며 기쁨도 아름다움도 다 없어져버리고 무기력해진 때를 일컫기도 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개개인의 질병이나 고난이 그의 죄의 결과라는 인과적 관념에 젖어있던 제자들은 이같이 소경으로 출생한 경우는 그것이 본인 자신의 죄의 결과인지 궁극하여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자신의 죄의 결과나 혹은 부모의 죄의 결과도 아닌 오직 인간의 불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 하심임을 말씀하시면서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라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밤'이란 주께서 그의 공생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가실 것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일할 수 없는 밤이 반드시 오게 마련

입니다. 그러면 이 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1. 기력이 쇠하여져 어떤 일도 하기 힘들어지는 노년의 때를 의미합니다.

인생에게는 동녘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생명이 출생되는 신생아가 있는가 하면 정오의 햇살같이 강렬한 정열적인 청년기가 있으며,

서산에 해가 기울어 잠시 후면 밤이 찾아올 황혼의 노년기가 있습니다. 그런고로 지혜와 부귀영화를 한몸에 누렸던 솔로몬왕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둠기 전에 그리하라"(전12:1-2)고 기록하였고, 이어서 무기력해진 인생의 노년기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유한 것인데 아무리 힘 있는 영웅 호걸 열사라 할지라도 인생 황혼기에는 모두가 기력이 쇠하여져 허리는 구부러지고 마음마저도 나약하여 어린아이 같이 되며 치아는 하나씩 빠져서 맷돌질의 역할을 감당해내기 어렵고 사물을 바라보던 창과 같은 눈은 시력이 약하여져 제대로 분별이 힘들며 검고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살구꽃같이 희어지게 되며 만사에 의욕이 상실되고 결국에는 그렇게도 알뜰히 가꾸고

다듬던 육체는 본연의 위치인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런 날들이 오기 전에 위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래로는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사명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

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갈 것 같고,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사40:30, 31)이라고 하였습니다.

2.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병상의 밤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소원하던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상에 몸져눕게 되어버린다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질병이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며 의욕마저 상실하게 합니다.

건강할 때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다섯 달란트 받았던 착하고 충성된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요사이 새로 등록하는 교우들 중에는 과거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다가 몸에 질병이 생김으로 인하여 뜨겁게 회개하며 새로운 신앙의 결심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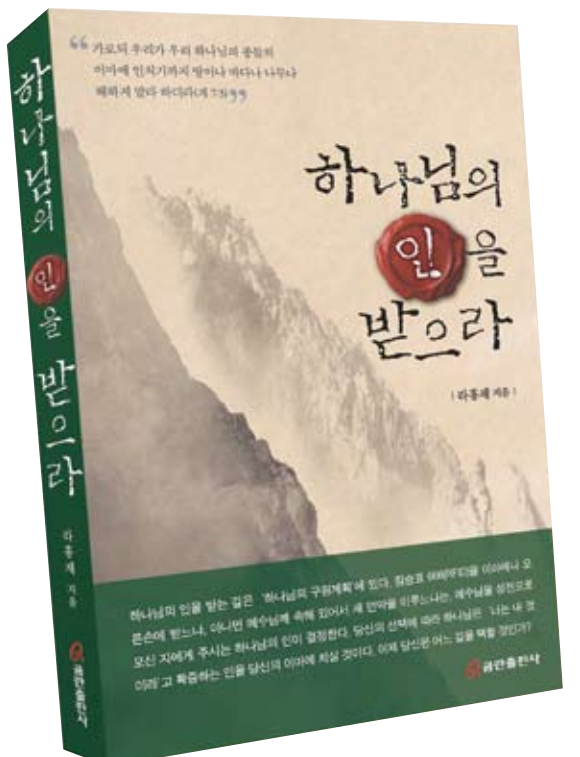
(5면으로 계속)

## 밤이 오기 전에! (요한복음 9장 4절)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가난을 자초하는 신앙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쓸데없이 종이라고 그냥 벨이면 안된다. 임으로만 '나는 종입니다'가 아니라, 종이라고 한다면 내가 섬기는 주인이 있다는 뜻이고, 그분의 밑에서 그 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시편 23편에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나온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려면 내가 양이 되는 것이 우선이며 기본이다. 내가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고 하는 것이지 그것 없이 어떻게 양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주인 되신 예수님, 왕 되신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동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계

꿀을 못 봐주는 것 같다. 이른바 개혁이라는 이름의 악한 내부자가 쉽게 등장하는 것이다.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 꼭 비판자의 모습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대상들에 대해 낯선 정죄와 판단의 칼을 먼저 들이뺨을 본다.

교회 뿐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이 잘 되는 꿀을 못 본다. 이해하고 신뢰할만한 일들도 자신이 가진 믿음의 잣대로 판단한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는데 왜 그걸 썩수 들고 반대하고 욕하고 덤비는가? 그래서 결국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내부의 성장통(?)으로 인해 끝없는 고난의 시즌을 지나게 된다. 잘 될 때, 조금 더 마음을 합할 수 있다면,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벗어날 텐데, 늘 내부의 문제가 주의 몸 된 교회와 주의 종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본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목사는 무조건 성도들 앞에 불쌍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럴 때, 교인들이 힘들게 하거나

것이다. 한 므나는 한 달란트의 1/60 밖에 안되는 적은 자본금이다. 그런데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 가면서 종들에게 한 므나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말한 것이다. 각기 다르게 준 달란트와 무엇이 다른가?

누구도 차이를 주지 않고 한 므나를 주었다고 하니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한다. 누구나 똑같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그 의미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빈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한 므나를 받은 자 중에 어떤 사람은 열 므나를 만들어 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갖고 다섯 므나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수건에 싸아 두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

세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많이 버는 자가 충성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주인에게 순종해서 주인을 믿고

법철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라

참 성도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존재이다. 나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인지 분별하면서, 방향을 제대로 보고 가는 존재이다. 한결같이 의식한다. 그래서 여덟 가도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다.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 교회 때문에 그렇다. 기도해주셔서 그렇다. 이렇게 자꾸 주인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결코 가난할 수 없는 복된 성도의 모습이다.

특별히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입으로 시인하는 만큼 점점 약은 없어지고, 점점 복을 얻게 된다. 자꾸 주인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제가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주셔서, 장로님이 기도해주셔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자기가 다 끌고 다니는 것처럼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안되는 건 다 주님 탓, 교회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한국의 사회와 정치 외교, 국방 등의 시국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교회와 정치의 상관관계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애나하임에서 yang

A: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복음주의 교회의 공동된 교리는 교회와 국가는 다 같은 하나님에 세우신 신적기관으로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고 각기 독립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는 범죄를 막고 정의를 실현시키며 국민의 안녕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고 법과 질서를 가지고 통치합니다. 법 질서를 통해 악한 자를 벌하고 세속적인 정의(civil Justice)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세는 로마서 13장을 보면 "하나님께로 났으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영혼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만든 신적 기관입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교회는 사람의 영적인 영역, 즉 신령한 영역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사람의 육체적인 영역 즉 세속적인 영역에 관여를 합니다.

칼빈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박일민 교수는 "육체와 영혼은 상호보완적인 것처럼 국가와 교회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국가의 영역에 전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도 국가가 교회의 영역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도 주의해

개인적 영역과 사회구조적 영역에서 모두 시도

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신학을 전공한 서영일 교수는 "교회와 국가라는 책에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되 교회는 국가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심의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고 지적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타락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에 선한 정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 칼빈은 기독교인의 사회참여 및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면을 보였던 사람으로 1)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어긋나게 명령하지 않는 한 기독교인들은 정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2)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는 인간보다 하나님을 복종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칼빈은 무력으로 정부에 반항하는 입장은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존 낙스는 이러한 국가에 절대복종의 전통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정치문제를 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인인 노회익이 워싱턴 김형원 목사는 어느 글에서 한국 보수 교회들이 사회-정치 참여를 기피했던 성경적-신학적 근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른 지적이라고 봅니다.

첫째, 로마서 13장을 기초로 하는 '정교분리' 신학입니다. 한국의 보수 교회는 이 가르침을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국가 통치 세력들에게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권력이 선을 베풀고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4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1-2절만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둘째,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날카롭게 분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성속 이원론'입니다.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전도를 더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셋째, 설령 기독교인이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직접적인 사회참여와 변화에 나서는 것보다는 개인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의 변화로 연결된다는 근거 없는 순진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영역과 사회구조적인 영역에 모두 몰입이 있기에 변화도 두 영역 모두에서 시도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중하게 여기고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연대를 정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 1,440분이라는 시간적인 삶의 선물을 보람 있게 받아서 보람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3. 인생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의 밤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란 그 누구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면제받을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예감하는 본능의 언어인 밤을 원시인들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히9:27)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또한 죽음이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장자보다 연소자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짐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며, 물질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죽고 마는 하나님의 임의하신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아무리 풍성한 재물이더라도 생명을 보장할 수는 없음을 암시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이란 차별이 없고, 공평하며 정직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자기 사전에서 빼어버린 세계적 영웅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시간 이외의 것이라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줄 수가 있지만, 시간에 관한 것만은 들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위세 당당하던 나폴레옹이라 할지라도 시간만큼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이란 단어를 자기 사전에서 빼어버린 세계적 영웅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시간 이외의 것이라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줄 수가 있지만, 시간에 관한 것만은 들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위세 당당하던 나폴레옹이라 할지라도 시간만큼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자기 사전에서 빼어버린 세계적 영웅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시간 이외의 것이라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줄 수가 있지만, 시간에 관한 것만은 들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위세 당당하던 나폴레옹이라 할지라도 시간만큼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이란 단어를 자기 사전에서 빼어버린 세계적 영웅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시간 이외의 것이라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줄 수가 있지만, 시간에 관한 것만은 들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위세 당당하던 나폴레옹이라 할지라도 시간만큼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이 오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영위하려고 수고하며 노력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자기마음대로 하는 죄인, 제한된 믿음

- 갈수 있다고 다 길인가?

시느냐, 아니냐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은 만세 전에 택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천하 만민 모두가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어떻게 믿었길래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아전인수격이다. 믿어 안된다. 하나님을 있다 없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신앙관이 있다는 게 참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다. 결코 아름답지 않다. 인생을 살면서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인생에서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개성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행패하는 이들을 보게 된다. 자신은 믿는 것만 믿는 습성의 마음이다. 자신의 생각에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스스로 가난을 자초하는 신앙이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면 나의 생각을 넘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믿음의 세계이다. 결코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개별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주인의 기쁨 종의 기쁨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할렐루야 아멘'을 외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잘 되시는 거라면, 그냥 무조건 좋아하고 감사하고 무조건 영광을 돌리게 된다. 내가 섬기는 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기쁜 것이다. 내가 섬기는 그분의 일이 아름답게 드러나기에 그를 따르는 나는 박수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잘 되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의 종의 모습치고는 너무나 불가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느 도시에 한인교회가 18개가 있는 지역이 있다. 한인 인구가 2000명밖에 없는데 그렇게 여러 교회가 생겼다. 분열하고 분열해서 그래서 20-30명씩 모이는 교회가 18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부흥을 말하지만 교회가 부흥해서 분립하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곳의 특징을 들여보면, 목회자를 싫어하고 어쨌든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 주인이다. 서로 주님 안에서 다 종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섬기는 자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험뜯고 욕하고 잡아 내릴까 이런 모습으로 나 아간 결과물들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과정을 지나야 할 것이다. 만약 내가 다니는 학교를 풍통(?)학교처럼 생각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비전하게 생각한다면, 결국 학생으로서의 그 삶도 별로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 속에 무슨 열정이 있을 것인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풀 보지 싫으면 내가 공부할 잘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선생이 가르치는 것보다 과외교사한테 배워서 난 성적이 좋아진다. 이라고 담비면 어떻게 방해할 길이 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다. 복되게 하시려고, 종과 주인의 사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설명하고 계신다.

한결같은 마음, 충성

성경에 달란트 비유와 다른 강조점을 가진 므나 비유가 있다.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 가면 서 종 열을 부르고, 열므나를 가지고 열 명의 종을 불러 한 므나씩을 주면서 장사를 하라는

행했다는 것이다. 주인이 없는 데도 똑같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인이 없어도 한결같이 충성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주인이 없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선생님이 없을 때 우린 얼마든지 죄 짓고 딴 생각을 갖을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이 보이지 않고 멀리 갔음에도 한결같이 충성한 것은 분명한 믿음의 증거이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복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

과연 가는 게 길인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죄의 방향이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길도 차선이라는 게 있어서 안전하게 다니지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 모든 것이 죄가 된다.

처음 인도에 갔을 때 내려가는데 차가 정면에서 온다. 분명히 차선이 있는데 차가 정면으로 오니 놀랄 수밖에 없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긴 가는 게 길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찌 가는 것이 다 길이 될 수 있겠는가?

어렸을 때 한국도 그랬다. 깨우치는 과정이 없을 때, 눈으로 보라고 글을 써서 붙여두었다. 사람은 왼편, 차는 오른편, 이걸 외치고 외우고 그리고 살았다. 그러나 인도를 유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법은 방향을 알려주기에 좋은 것이다.

만약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가정에 법이 없다면 아버지를 때려죽일지도 모른다. 아버지 힘도 없고 빠단 남은 아버지 칠 수 있지만 법이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타고, 나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상한 소리만 떠들게 된다.

주님은 길, 진리, 생명이시다. 세상의 빛이시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방향기가 되신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식하고 인정하고 순종함이 최고의 복이 된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간다고 어찌 모두 길이 될 것인가? 인생의 복된 길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davidnjeon@yahoo.com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그들이 한결같은 고백은 "병이 들기 전에 좀 더 충실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어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 영혼이 잘되면 법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게 되기 때문이며(요삼 1:2), 주님께 붙어있지만 하면 또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주시마고 주님은 약속 하였고(요15:1-6),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말4:2).

혹시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좌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곧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간구하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질병에서 구원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온 분은 질병의 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주님 위해 주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쓰는 칼에 녹이 슬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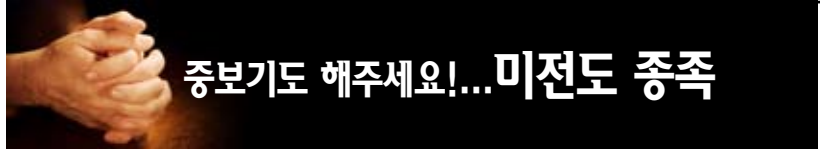
흐르는 물에 이끼가 끼지 않듯이, 충성된 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장수하며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는 영육의 축복을 보장받게 됩니다.

3. 인생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의 밤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란 그 누구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면제받을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예감하는 본능의 언어인 밤을 원시인들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히9:27)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또한 죽음이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장자보다 연소자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짐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며, 물질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죽고 마는 하나님의 임의하신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아무리 풍성한 재물이더라도 생명을 보장할 수는 없음을 암시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이란 차별이 없고, 공평하며 정직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자기 사전에서 빼어버린 세계적 영웅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시간 이외의 것이라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줄 수가 있지만, 시간에 관한 것만은 들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위세 당당하던 나폴레옹이라 할지라도 시간만큼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이란 단어를 자기 사전에서 빼어버린 세계적 영웅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시간 이외의 것이라면 무슨 소원이든 들어줄 수가 있지만, 시간에 관한 것만은 들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위세 당당하던 나폴레옹이라 할지라도 시간만큼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프가니스탄의 피로즈코히(FIROZKOH)



피로즈코히족은 아프가니스탄의 중부 산악 지대에 사는 규모가 작은 종족이다. 피로즈코히족은 좀 더 크게는 차르 아이마크(Char Aimaq) 종족 집단에 속한다. 차르 아이마크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북부 지방에 흩어져 있다. 피로즈코히라는 이름은 "피루즈쿠(firuzkub)"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피루즈쿠는 "청록색의 산(mountain of turquoise)"이라는 뜻이다. 피로즈코히 사람들은 파르

시(Farsi)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어에 속하는 언어와 투르크(Aimaq)어의 어휘를 함께 사용한 다. 세월이 흐르면서 차르 아이마크족은 이동하게 됐고 흩어져서 다른 다양한 정부들과 연합하게 됐다. 피로즈코히족은 험한 산악 지대를 따라 정처 없이 거니는 준유목 종족이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세계적으로 무역 길로 알려진 장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다양한 종족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차르 아이마크족은 혼합된 문화유산을 형성하게 됐다. 이들 대부분은 몽골인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징기스칸 병사의 후손임을 강조한다. 차르 아이마크족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항해 활동적으로 싸웠

며, 이후 계속된 내전에도 참여했다.

삶의 모습

피로즈코히족이 한때는 완벽하게 유목민족이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특정한 계절 동안만 이동하는 준유목민이 됐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있었던 가뭄과 침식으로 인해, 많은 피로즈코히 사람들이 농부가 됐다. 이들은 밀, 포도, 쌀, 보리, 귀리, 멜론, 야채 등을 키운다. 농사일에 괄이와 나무로 만든 쟁기를 사용한다. 그림에도 피로즈코히 문화에서는 농사가 여전히 주된 활동이 아닌 부차적인 활동으로 인식된다. 한 사람의 재산은 그가 가진 가축의 규모로 결정된다. 피로즈코히족은 고기, 어유, 지방, 치즈 등을 공급하는데 자신들의 가축에 의존한다. 텐트를 만드는 데도 역시 동물의 가죽이 사용된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조차도

봄과 여름에는 자신들의 텐트로 나가서 생활한다. 아이마크 부족들의 일부는 도시에서 생활하며 농사짓는 동안에 벽돌로 지은 오두막에서 생활한다. 그러나 피로즈코히족은 주로 원형이며, 지붕이 둥글고, 이동 가능한 "천막집(yurt)"에서 생활한다.

피로즈코히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부계사회다. 사회에서 가족이 가장 중요한 단위다. 한 남성, 그의 부모, 그의 아내 혹은 아내들, 그의 자녀들이 한 가족을 이룬다. 어린 소녀가 결혼하게 되면 그녀는 남편의 직계가족의 일부로 여겨진다. 피로즈코히족의 종족적 일체감은 가족과 씨족에 기초한다.

피로즈코히 여성들은 가족 때 지키는 것을 돕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들의 기본적인 일은 카페트를 짜는 일이다. 각 부족 혹은 마을마다 각기 자신들만의 독특한 패턴이 있다. 이 패턴은 어머니에게서 딸로 전수된다. 여성들은 좋은 모직 카페트를 만들기 위해 휴대용 직조

기계를 사용한다. 음식을 마련할 재원은 약한 편이며, 카페트를 만들어 번 돈이 피로즈코히 사람들이 생존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가축, 현금과 함께 카페트 역시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된다.

신앙

사실상 피로즈코히족은 수니파(정통파) 이슬람교를 믿는 하나피테(Hanafite) 이슬람교도들이다. 이들은 이슬람교에서 하나피(Hanafite)가 가장 순결하다고 믿는다. 이들의 이슬람에 대한 강한 믿음은 종종 기독교를 "순수성을 잃은 일신교(corrupted monotheism)"라고 비웃게 한다. 그러나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코란에도 있는 구약의 이야기에 익숙하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영적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자유의 전사들"에게 군수품을 제공했다. 후에 아프가니스탄이 정치적 내전에 휘말리면서 인권은 유린됐고 이러한 군수품 제공은 끊겼다. 전 아프가니스탄이 소련과의 전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많은 마을이 파괴되고 음식을 찾기 어렵게 됐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안전한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려우며, 전쟁은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피로즈코히족이 거처를 이동하고 넓게 퍼져 있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현재 한 선교단체가 이 피로즈코히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 그러나 피로즈코히족 가운데 신자로 알려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기도가 이들을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反기독교 공세에 10여년 전통 '교회졸업식' 포기

텍사스주의 한 공립고등학교가 비기독교인 학부모들의 반대로 최근 교실에서 진행해온 졸업식 전통을 없앴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 교직원들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피소되기까지 했다. 미국 비영리 종교매체 RNS(Religion News Service)는 27일 미국 텍사스주 맥키니 공립고등학교의 상황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맥키니고교 내 반(反)기독교적 움직임은 지난해 여름 교직원 모임 때 기독교인 리 맥대니얼 학교감독관이 십자가가 있는 프레스턴우드침례교회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본격화했다. 그 이후 지난달 비기독교인 부모를 둔 이 지역 학군의 학생 2만4500여명이 이 교회에서 진행하던 졸업식을 없애야 한다며 연대서명을 진행했고, 결국 졸업식 전통은 없어졌다. 학교는 침례교단의 대형교회인 이 교회에서 지난 10여년간 졸업식을 해왔다. 학교 대변인은 "근접성, 편리성 등을 감안해 졸업식 장소를 프레스턴우드침례교회에서 컨벤션홀인 '엘런 이벤트센터'로 옮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교회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잭 그레이엄 프레스턴우드침례교회 목사는 트위터를 통해 "맥키니고교에서 종교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학교 관리자가 무신론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 중 한 사람으로 전 남침례교단 총회장이다.

기독교인 학부모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부모 블란체씨는 "이곳으로 이사 오던 7년 전만 해도 상점 직원이 '하나님께서 축복하길 바란다'는 인사를 건넸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며 "지역 내 기독교 가치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기독교인 학부모는 "프레스턴우드침례교회에서 열린 조카들 졸업식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며 "졸업식 장소가 바뀐다니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엔 맥키니중학교 교사 2명이 반(反)동성애, 반이슬람과 관련된 글을 트위터에 남기고 사임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반기독교적 목소리는 커지는 분위기다. 미국의 대표적인 무신론단체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FRF)'은 성명을 통해 "학교 졸업식을 교회가 아닌 세속적인 장소로 옮긴 것은 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맥키니고교의 한 무슬림 학부모는 지난달 학교 이사회에 참석해 "아이들이 인종 종교 성별 성적취향 때문에 '왕따'당할 위험이 여전히 있다"며 "동성애를 찬성하는 단체가 진행하는 다양성 교육을 학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CCTV, 예배 중에는 꺼리"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는 영국의 교회 법정이 기도하는 성도의 사생활이 침해되어선 안 된다는 이유로 교회는 예배 중에 CCTV를 꺼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행위다. 성도는 기도할 때 자신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솔직한 기도는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영국교회가 처음으로 CCTV 사용 윤리에 관한 판결을 내린 셈이다. 영국 남부 캔터베리에 있는 세인트메리차트렘교회의 필립 브라운 목사는 교회를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개방하기 위해 CCTV 2대를 설치하려고 했다. 교회를 개방할 경우 기독교 혐오나 종교 갈등 등으로 인한 기물 파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에 대해 캔터베리 교회 위원회는 CCTV 설치를 허가하면서도 교인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일 예배를 포함해 교회 행사가 진행될 때에는 CCTV를 꺼두라고 지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장례식과 세례 등이 매우 민감할 수 있다"며 "또 기도만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장소에는 카메라가 설치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영국 교회는 'CCTV 사용자는 반드시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한다'는 영국 정부의 CCTV 사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영국 교회는 100년 넘는 역사적 건물이 많다. 단순한 기물 파손도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교계 전문가들은 "오히려 문을 계속 개방하는 것이 잠가 두는 것보다 반달리즘(문화유산이나 예술품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영국교회는 교회를 항상 개방해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성묘교회 잠정 폐쇄... "세금 1억8600만불 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무덤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묘교회가 최근 문을 닫았다. 이스라엘 정부가 기독교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려 하자 기독교인들이 일제히 반발해 교회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언제 다시 문을 열지 불투명한 상태다.



로이터통신과 영국일간 텔레그래프 등 서방언론들은 25일 "성묘교회를 공동 관리해온 로마 가톨릭교회와 그리스정교회, 아르메니아정교회, 이집트 콥트교회 등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세금정책에 강력 항의하는 차원에서 성묘교회를 휴관했다"고 보도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최근 조치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항의의 수단으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교회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시 당국은 이달 초 예루살렘 내 교회 소유지에 적용했던 세금 감면을 전면 취소하고, 총 6억5000만 달러(1억8600만 달러)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중앙정부도 최근 몇 년간 교회가 민간 부동산회사에 매각한 예루살렘 내 토지를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법안까지 내놨다. 부동산회사가 토지 임대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토지 위에 지어진 주택을 빼앗을 수 있어 주택 소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 재산을 쉽게 매각하지 못해 운영비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법안은 유럽의 압력에 유대인에게 불리하게 행해졌던 법률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각료위원회는 이날로 예정됐던 이 법안 채택 여부를 일주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 최고 성지 가운데 하나인 성묘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부활하기 전 안치됐던 묘지에 세워져 있다. 로마 가톨릭, 그리스정교회, 아르메니아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집트 콥트교, 시리아 정교회 6개 종파가 구역을 나눠 교회를 공동관리 하고 있다.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은 1990년 유대인 정착 시설에 항의해 성묘교회를 비롯해 기독교 유적들이 하루 동안 문 닫은 이후 처음이다.

텍사스에 이미 교사 '무장'시킨 교육구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의 교사에게 총기를 지급하자는 대책을 내놓아 미국 내에서 '교사 무장화'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텍사스주



에 이미 교사를 무장시킨 교육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CNN에 따르면 텍사스주 델러스에서 북쪽으로 120km 떨어진 캔리스버그 교육구 관내 학교에는 4년 전부터 교사들에게 총기가 지급됐다.

CNN은 "아직 교사들이 실제로 총기를 사용한 적은 없었지만, 이 교육구의 학생들은 만일의 불상사가 생겼을 때 교사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어 더 안전하게 느끼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캔리스버그 독립 학교행정부도 불리는 이 교육구에서는 이른바 '수호자(가디언)' 프로그램이라는 명분을 걸고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총기를 지급했다. '컨실드 캐리(총기를 외부에 보이지 않게 휴대하는 것)' 방식으로 교사들이 총기를 관리하고 있다.

이 교육구의 스티브 클러스턴 위원장은 "교사보다는 교직원이 총기를 휴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는 아이들과 학교 스태프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면 어떤 것이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구는 연간 단위로 총격범 출현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 훈련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으로 교육구 관내에 전담 경찰서가 없고 인근 쿡 카운티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CNN은 농촌 지역의 경우 교사 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도시 지역보다 훨씬 강하다고 밝혔다. CNN은 텍사스주에 1천여 개의 공립 교육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약 170곳에서는 교사와 교직원의 컨실드 캐리 방식 총기 휴대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미국총기협회(NRA)는 개인의 무기 휴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교사 무장화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교육협회와 미국교사연맹(ATF) 등 교원 단체들은 교사 무장이 학교를 군사 요새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책을 성토했고 있다.

전세계 사이버테러 목표 '北 비밀 해커조직' 드러나

북한이 전 세계를 위협할 만한 사이버 테러 능력을 은밀하게 키우고 있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여태 베일에 싸여 있던 해커 조직이 가동돼 남한뿐 아니라 전 세계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인터넷망에 연결돼 있지 않은 정보까지도 해킹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미 사이버보안 업체 파이어아이이는 20일 낸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커 조직 'APT37'이 존재하며 이들이 대규모 사이버 테러를 위해 해킹 기술을 향상시켜 왔다고 밝혔다.

리퍼(Reaper)로도 불리는 APT37은 기존에 스카 크립트(Scarcrift), 그룹123(Group123)으로 알려진 이들과 동일한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

CNBC는 또 다른 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보고서를 인용해 APT37이 기존에 널리 알려진 북한의 해커 조직 '래저러스(Lazarus)'의 3개 하부조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래저러스는 2014년 소니픽처스, 2016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 해킹 사건으로 유명하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따르면 APT37은 래저러스 내에서 '미로 천리마(Labyrinth Chollima)'로 불린다. 이 외 래저러스의 다른 2개 하부조직은 '침묵의 천리마(Silent Chollima)'와 '별뿔 천리마(Stardust Chollima)'다. 침묵의 천리마는 파괴적 공격을 담당하며, 별뿔 천리마는 주로 금융 시스템을 해킹해 돈을 훔친다.

파이어아이에 따르면 APT37은 최소 2012년부터 활동해 왔다. 남한을 최우선 공격 지역으로 삼았지만 지난해부터는 일본과 베트남, 중동 등도 공격했다. 화학, 전기, 제조업을 비롯해 항공, 자동차와 헬스케어 등 공격 대상이 된 산업 분야도 다양했다. 이들은 주로 정보를 빼내는 활동에 집중했으며 해킹에 사용하는 멀웨어(악성 프로그램)도 끊임없이 바꿨다. CNBC는 "이들이 쓰는 멀웨어는 인터넷망에서 물리적으로 차단되거나(air-gapped) 네트워크에 연

결되지 않은 문서도 빼낼 수 있다"고 전했다.

NYT '문 대통령 평창올림픽 후 어려운 선택 직면할 수도'

뉴욕타임스(NYT)는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의 기상을 전망하는 기사를 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어려운 선택(tough choices)'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지도자는 평창올림픽 기간의 휴전을 지속적 평화로 바꿔놓을까'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어렵게 조성된 남북한의 화해 무대를 이어가면서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와 관련 단절(rupture)을 예방하려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당장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제안 받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에서 미국과 북한 고위 인사들이 서로를 의문한 것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미북 간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핵 해법이 전혀 진전되지 않아, 향후 미북 관계가 평창올림픽 이전의 극한 대립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이 올림피 기간 북한의 '미소공세'가 얼마나 지속할지 평가하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대북 강경 기조 또한 부담이 될 것으로 지목됐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 북미 대화에 전향적 의향을 밝힌 데 대해 25일 "우리는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북한의 오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을 따르는 첫걸음을 의미하는지 볼 것"이라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조건을 고수하며 반응했다.

워싱턴의 강경파들은 한국의 더욱 유화적 제스처와는 두드러지게 다른 입장을 보인다.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최고조의 대북 압박을 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엇박자'(work at cross purposes)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는 워싱턴 실망감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두 동맹국 지도자의 의지가 심각하게 충돌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예견했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군사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올림픽에 노력할 경우, 올림픽 휴전을 조성해 한반도 긴장을 극적으로 낮추고 한국을 이런 과정의 '핵심 선수(key player)'로 회복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특히 미국 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서 미국이 한국의 이런 중재자 역할을 어느 선까지 지켜볼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료들도 미국이 남북 간 실행 가능한 외교체널이 존재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이를 미국의 목표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를 계산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더욱 일관된 메시지를 정하는 일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또한, 백악관은 남북 외교가 가속화한다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NYT는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과도한 양보는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강경책을 고수할 경우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인 한국이 중국에 가까워지며 미국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호주대 퍼스 미국아시아센터의 고든 플레이크 대표는 "문 대통령은 순진한 아이가 아니다"면서 "한국은 미국과 그리 큰 거리를 두지 않고,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궤적을 필수적으로 바꾸려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평창올림픽 후 한미관계의 첫 시험대는 3월 18일 끝나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이후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의 재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위대한 반전

800년 12월 25일, 중세 교회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국가의 수장인 황제가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제관을 수여받은 것이다. 그 유명한 샤를마뉴 대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던 장면이었다. 교회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닌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 중심에 있다. 로마 황제들의 잔인한 박해를 무릅쓰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당시 교회의 상황은 절대적인 힘을 자랑하며 천하를 다스리던 국가의 힘에 의해 항상 놀려야 하는 처지였다.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던 국가의 조직적인 박해는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보장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불씨조차 허락하지 않으려고 달려들었던 로마 황제의 손에 의하여 멸절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복음이 허락하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313년부터 초대교회의 역사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틴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1세에 의하여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되었다. 이로써 교회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렇게 진행된 새로운 상황에서도 교회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절대적인 힘을 벗어날 수 없었다.

800년 12월 25일에 일어난 사건이 위대한 반전의 수박에 없다. 교회가 국가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샤를마뉴는 현재 유럽 서부 지역을 통일시킨 국가의 수장이었다. 막강한 정치적 힘을 지녔던 황제가 교황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앞서 서방 교회와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교황권 강화 과정

서방 교회가 교황권을 강화하게 된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오랜 세월을 두고 거론된 로마 교회의 우월성에 대한 목소리를 그 근원으로 볼 수 있다. 사도 시대에는 '감독'과 '장로'라는 단어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속사도 시대에 와서 '감독'과 '장로'를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서 '감독'을 사도적 전통을 계승한 자로 지목하고, 강력한 감독제를 노골적으로 암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안디옥의 이그나시우스(Ignatius of Antioch, 35-107)가 있다.

이그나시우스는 순교로 생을 마감한

경건한 신앙인이었다. 안디옥으로부터 로마로 압송되는 동안 기록한 7개의 서신에 자신의 다양한 사상을 표현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감독제에 대한 언급이다. 이그나시우스는 그 당시 출현한 이단과 분파가 미쳤던 악한 영향을 크게 우려하였다.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세워야 효과적으로 그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중요한 골자는, 감독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모든 성도는 반드시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독은 하나님과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지역 교회를 관장

주저하지 않았다.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안(Thascius caecilius Cyprianus, 210-258)은 로마 감독의 사도적 계승을 강조하면서, 교황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전통을 구축한 인물이다. 그의 교회론은 로마 황제의 박해 시절에 발생한 변절자들에 관한 처리를 두고 교회가 혼란을 경험하면서 세워졌다. 고백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적 이단들에 맞서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에게 엄격한 태도를 지녔으며, 심지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는 바로 교회의 통일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키프리안은 감독들의 권위가 로마 교회 감독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함으로써 중세 시대에 지속된 교황주의 체제의 기초를 놓은 것이다.

기독교가 종교적 자유를 얻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로마 교회 감독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로마에서 출생하여 로마 교회의 감독이 된 다마스 1세(366-384)는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에 대한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그는 로마 교회의 예배 의식을 위한 통일된 성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롬

지적 영역을 수호하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마지막 북아프리카 태생 교황이었던 겔라시우스 1세(Gelasius I, 496년 사망)는 시기적으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의 갈등이 정점에 이르는 상황 속에서도 로마 교황이 사도 베드로를 계승한 사실에 근거하여 동, 서방 교회 전체를 통치하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그는 교황과 황제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교회와 국가를 통치하는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국가보다 교회의 권력이 상위임을 주장하였다.

반전의 후폭풍-예상되었던 혼동

그 다음은 초대교회의 감독제를 중세 교회의 엄격한 교황제로 전환 시킨 그레고리 1세(Gregory I, 540-604)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시간이 지나가면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교황권이 강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로마 교회의 감독의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아주 긴 시간동안 교회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800년 12월 25일에 레오 3세가 샤를마뉴에게 황제의 관을 수여하게 된 것은 갑작스런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속사도 시대로부터 출발한 '군주적 감독제'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것은 이단의 출현과 함께 교회의 순수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낳은 역사적 산물이다. 로마 교회 감독의 확고한 위치를 베드로라는 인물과 연결시키는 성경 내용을 근거로 하여 설명하려 하였지만, 우리는 이 역시 성경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낳은 오류임을 잘 알고 있다.

국가의 힘에 의해 놀라웠던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아 로마 교회의 절대적인 교황권에 근거하여 국가의 수장인 황제 위에 자리를 잡은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그러나 결코 두 팔을 벌이고 환영할 만한 일은 못된다. 샤를마뉴 황제의 대관식을 단순히 '교회의 승리'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의 핵심일까? 향후 황제들이 샤를마뉴와 같은 저자세를 취하지 않고 교황을 대적하여 힘 겨누기를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생겨난 다양한 사건들이 가중될수록 중세교회는 영적인 어둠으로 빠져들었다.

이는 위대한 반전이 불러온 후폭풍이었다. 즉 예상되었던 혼동이었다. 무엇을 말하는가? 중세 교회가 서유럽의 정치 상황과 맞물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세교회에 정통하려면 반드시 로마가 476년 게르만 족에 의하여 멸망한 이후 얼마동안 게르만 왕조로 분리되었다가, 옛 서로마 영토를 통일하면서 481년에 탄생한 '프랑크왕국'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오토 1세가 교황 요한 12세에게 대관식을 받으며 962년에 출범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와 교황 사이에 생겨졌던 연속되는 갈등에 주목하여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5)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로마제국의 기독교 공인 후 초대교회 역사는 새 방향으로 황제가 교황에게 제관 수여받아... 교회의 국가 우위 증명

하며, 그가 승인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인정하신다고 확신한 것이다.

초대교회 변증가로서 순교를 당하였던 이레니우스(Irenaeus, 130-20)도 강력한 감독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감독의 위치가 지닌 중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특히 그는 직

이와 맞물려 키프리안은 감독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는데, 교회는 감독위에 세워졌기에 감독을 가진 교회만 진정한 교회임을 천명하였다. 성도는 감독의 사도적 계승권을 인정해야 하며, 나아가서 감독의 수용하는 것이 곧 교회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키프리안은 교회의 통일성과 함께 감

(Jerome, 348-420)에게 라틴어 번역을 의뢰하거나,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의 무덤을 복원하고 이곳을 순례하여 그들의 신앙을 본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로마 교구를 사도적 교구로 선언하면서 로마 교회의 우위권을 주장하였으며, 로마 교회를 교회 중의 최고 교회로 선언하였다.

이레니우스, '사도적 신앙계승' 관점 강력한 감독제 주장 키프리안, 중세 시대에 지속된 교황주의 체제 기초 놓아

접 계승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사도들로부터 계승된 신앙을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하였다.

이레니우스가 이해한 감독은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받아 교회를 보존하며 지켜가는 신앙의 정통성을 지닌 자이다. 즉, 그는 '사도적 신앙의 계승'이란 관점에서 강력한 감독제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서 그는 로마 교회가 베드로와 바울에 의하여 설립되었기에 다른 교회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사도적 전통'에 근거하여 로마 교회의 감독의 우월성을 표현하기를

독직의 통일성도 강조하였다. 또한 로마 교회의 감독을 감독 중의 감독이라고 소개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감독직의 통일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성경적 근거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권위가 사도들 중에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데,

로마 감독이었던 레오 1세(Leo I, 440-461)는 로마가톨릭교회로부터 '대 교황'의 호칭을 얻은 두 교황 중에 하나이다. 그는 5세기 중반 유럽에서 강력한 힘을 지녔던 아틸라(Attila, 406-453)의 로마 진군을 설득한 뒤, 로마 시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다. 그는 서로마 제국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 몰락의 길을 걸고 있을 때, 서방 교회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로마 감독을 베드로의 후계라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로마 감독은 로마의 종교적 영역과 정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ast.org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Table with 4 columns: Department, Degree, Duration, and Outcome. Includes rows for Theology, Bible, and Pastoral Theology.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 성경도 신앙 (48) 청교도와 학교 교육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2) 주일학교 교육  
(1)레이크스(Robert Raikes)의 주일학교 운동  
기독교 교육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었던 훈련장은 주일학교라고 할 수 있다. 교회들을 통해서 수백 개의 대학과 종합대학교를 설립했지만 주일학교는 참으로 광범위했다. 비록 종교 경험과 문화에서 차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주일학교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물론 대중교육과 비교하면 주일학교는 미국 사회의 변두리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 미국의 다양한 융합문화(melting pot)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측면에서는 귀중한 학교였다.

초창기의 주일학교는 개혁운동으로 출발하였다. 레이크스(Robert Raikes)가 1780년과 1781년에 영국의 글로스터(Gloucester)에서 가난한 아동을 위해 학교를 시작하면서 그 주일의 학교는 교회의 대행기관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는 주일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성경 교육을 수행한 최초의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존 웨슬리가 1735년 선교한 조지아 주

고 있었다. 어른들의 관심 밖이던 심대들은 이전의 청소년들과는 전혀 달리 직업 선택의 경쟁에 매달리게 되었다.

미국의 주일학교는 신속하게 성장하였는데, 1790년경에는 보스턴(Boston), 필라델피아(Philadelphia),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와 포트깃(Forttucket)과 같은 보다 소규모의 타운에 주일학교가 있었다. 그 당시 필라델피아 주일학교 모임(First Day Society)은 교육연령이 지난 사람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였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고 베끼는 것을 가르치도록 교사들을 고용하였다.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1790년과 1800년 사이에 주일학교에서 1,224명의 소년과 903명의 소녀들이 교육을 받았다. 교사들은 성경 이외에도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문맹을 깨우치려는 부담 때문이었다. 1828년경에는 주일학교 아동의 2/3가 확장된 주일학교에도 출석하였다.

주일학교의 지지층이 상류계급의 아동뿐만 아니라, 중류계급 출신의 아동까지 포함되었다. 중류

속으로 이끄는 목표(엡4:13, 골1:28)를 지향하면서 나아갔으며, 이를 통해 영적인 번식과 배가 사역이 이루어져 갔다.

### 9. 후기 교육의 변질과 반동

1) 제퍼슨의 고전주의  
19세기 미국 교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성경적인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청교도주의의 교리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잉크리스 매더(Inchris Mather), 코튼 매더(Cotton Mather)는 인간의 타락을 가르쳤으며, 에드워즈는 한 세기 이상을 미국의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의 신학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미국의 독립전쟁 이후 초월주의와 유니테리안(Unitarian)의 교리는 에머슨 소로우(Emerson Sorrown), 채닝(William E. Channing)의 지도하에 급성장하였다. 1816년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교가 설립되자 그곳은 유니테리안 교육의 근거가 될 정도였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며 대통령이기도 했던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이신론자(deist)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교육이론가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제퍼슨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모두 이신론자로서 식민지 시대의 기독교적으로 정향된 교육에서 미국 대중교육의 후기 발전을 특징지으며, 한층 세속적인 접근으로 무게중심의 축을 옮긴 교육개혁을 제안했다. 제퍼슨이 신봉한 신학은 이신론과 유니테리안 교리의 혼합이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기독교와 기독교 교육은 성경적

## 19세기초 미국 주일학교는 평신도운동으로 확대, 아동 회심에 주안점 점차 유니테리안 신학 바탕으로 도덕, 건강, 지식에 가치 두고 세속화

에서 선교사 시절에 주일마다 아동을 가르쳤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복음이 교육되고 또한 아동의 읽기 교육에 도움을 주는 사역을 감당할 것은 레이크스이다.

그는 죄수들의 도덕 교육에 대한 소명 때문에 교도소 개혁을 시작하기도 한 사람이다. 레이크스의 주일 자선학교는 불우한 아동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도덕적으로 변화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기관을 운영하였다. 장년들을 위한 관심과 격려, 겸손한 인격으로 다음어가기, 상류계급의 선형의 장려, 빈민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아름답고 놀라운 사건들, 읽기를 배울 자유 등 충분한 기독교적인 지도와 인도라는 동기로 시작되었다.

(2) 주일학교의 진행  
산업혁명 이전의 영국의 가난한 사회상태는 주일학교를 만들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장에 고용된 아동들은 주 6일 간의 긴 시간을 보냈지만 주일은 그 짐을 벗는 자유의 날이면서 동시에 타락한 행동들이 일어나는 날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영국의 평신도인 윌리엄 파크스(William Fox)는 세속적인 학교들이 불우한 아동에 관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 국가인 영국단체들이 아동들에게 교육을 전혀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주일학교를 추진시키기 위한 최초의 조직에 착수하였다.

50년 후인 1780-1830년 사이에 주일학교는 대서양을 건너 19세기 초에 미국인들의 아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오게 하였다. 농업 경제인 미국이 도시와 산업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하층계급 출신의 아동들이 가정에서 노동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중산계급의 아동들의 역할은 급격하게 변모하

게급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기독교적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신실한 신앙의 부모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그들은 자녀들이 별도로 모이는 주일학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회에 요청하였다.

이런 면에서 주일학교는 일종의 평신도 운동이었다. 최초의 기독교 교단 목회자들은 주일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중산층 아동들을 포함한 운동이 성장함으로써 열성적인 교회의 회중들과 주일학교들이 병행하여 성장하였다. 따라서 성직자들은 점차로 주일학교의 잠재력과 성장력을 인식하게 되었고 주일학교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일학교 역사는 아동들을 회심으로 인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학생의 훌륭한 암기 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이 암기해야 할 바를 이해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서 진리를 느끼게 만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를 학생의 회심을 위한 토론장으로 조성하려고 했다. 교사들은 아동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회심하도록 하는 것을 주일학교의 일차적인 교육의 결과로 여기게 되었다.

주일학교는 6-10명 단위의 소규모 학급이었고 대략 14세가 되면 학생들은 주일학교를 끝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반이 생겨났으며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동부 교회학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어린 자녀들 곧 4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들에게 성경의 개념을 가르치는 유아반도 시작되었다. 주일학교 아동들이 교회에서 자라나 성인이 되면 그들은 교사로 돌아갔고(딤후2:2), 주일학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의 성

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로서의 기능일 뿐이었다. 그는 유니테리안 교육의 결과로 파생된 도덕, 건강, 지식이라는 세 가지 주요 가치를 논하고 주장함으로써 세속 교육을 이끌었다.

### 2) 호레이스 만의 보편교육

호레이스 만(Horace Mann, 1796-1858)도 유니테리안 교도가 되었고 그는 기독교를 경건으로서가 아니라 도덕적 실천으로 보면서, 인류는 교육의 과정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연 종교가 계시신학에 비해 현저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믿음으로, 인간 이성의 탁월함을 고수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지적 선도자인 존 로크(John Locke)의 이신론을 받아들였다. 그가 강조한 것은 보편교육(universal education)이었다. 호레이스 만은 공립학교가 인간이 이룩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참 사립의 예방과 교정의 수단으로 제시했다. 그는 유니테리안 교도들이 뒷받침했던 자연신학의 바탕에 비추어 해석된 교육개념을 가졌는데, 그것은 에머슨, 소로우, 채닝의 자연신학의 영향이었다.

만은 학교에서 성경의 사용을 권장하긴 했지만 그는 성경을 신성한 것으로 보기가보다 사회의 능력과 시민들의 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재로 참조할 뿐이었다. 그는 기독교 신앙과 교육에 대해,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대한 초점을 맞춰 실용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들려고 하였다. 기독교를 자유로, 그리고 교육을 근원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는 기독교와 청교도 정신에 의해 형성된 미국의 청교도신앙 평가절하 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younsuklee@hotmail.com

##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 간 암

### 바이러스성 간염이 주범

-세탁업에 종사하는 50대 후반의 임 씨는 3개월 전부터 전신이 피곤하고 식욕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 한 달 전부터는 오른쪽 상복부가 뜨겁 뜨겁하게 아프고 복부가 팽창해 왔으며, 이를 전부터는 대변 색깔이 검게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을 찾아왔다. 임씨는 최근 들어 부쩍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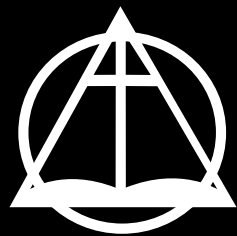
임씨는 10여 년 전에 C형 간염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왔고 그 외에 다른 질병을 앓은 병력은 없었다. 담배는 20년 전에 끊었고 술은 젊어서 많이 마셨지만 간염 진단을 받고 나서서 끊었다. 임씨를 검진했다. 혈압은 수축기 100mmHg, 이완기 60mmHg로 환자의 평소혈압보다 조금 낮은 편이었고 맥박은 분당 100회가 조금 넘었다. 막막한 편이었고 피부에는 간 질환 환자에서 보이는 소견들이 보였다. 복부 검진상 복수가 차 있었고 간이 커져있는 것이 만져졌다. 대변 검사상 혈변이 보였다. 병력과 이학적 검진을 토대로 임씨의 병력은 간 질환으로 말미암은 식도정맥류와 상부 위장관이 출혈로 일단 진단했다.

세부 정밀 검사상 임씨의 혈색소치는 10g/dL로 낮았고 복부 CT 검사상 간에 경화증이 있었고 간암으로 추정되는 지름 3센티미터 크기의 덩어리가 간 우엽에 보였다. 위 내시경 검사상 식도 정맥류 진단을 받았다. 또 간암의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인 알파태아단백질 수치가 높았다. 다행히 암세포가 다른 부위로 퍼진 흔적은 없어 보였다. 임씨는 원발성 간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갔다.

원발성간암(primary hepatocellular carcinoma)이란 간 자체에서 발생한 암을 말하는 데 한국인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 위암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다. 한국이나 중국, 대만에서는 B형 간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미국에서는 C형 간염이 간 경화증을 거쳐서 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미국에서는 원발성 간암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오랫동안 C형 간염을 앓던 환자들이 간암으로 진행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

간암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으로 곰팡이에서 생기는 아플라톡신(aflatoxin)은 발암 억제 유전자를 비활성화 시켜서 간암을 유발시킨다. 또 알코올 섭취도 간경화 및 간암으로 진행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간암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는 가능하지 않고 외과 수술뿐이다.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남은 간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절제술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간암 진단 때 수술이 불가능 한 경우가 많다. 이때는 경피적 간동맥 색전술(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을 많이 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간 이식을 시행하기도 한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8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2018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8.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8)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Dates: May 18(Fri)-21(Mon), 2018  
2) Place: Old Westbury, NY USA
- Examination Subjects**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3) OT Exegesis Text : Psalm 110:1-7  
4) NT Exegesis Text : Rom. 4:17-25  
5) Thesis Topic : Evaluate the New Perspective of Tom Wright in the view of the Reformed Theology.  
6) Sermon Text : Luke 16:19-31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7)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JohnJhoOTExegesisPaper.pdf)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Oral Interview**

- Accompanying Documents**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8.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5)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7) Fee: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Retake Exam fee: \$100)
-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8.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8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3)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2nd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2-25, 2018).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Miscellaneous Information**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8-21, 2018 Old Westbury, New York) through Rev. John Jho.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Submission Address**  
Rev. John E. Jho / Address: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U.S.A.  
Cell : (7028) 296-9193, E-mail :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Sunghoon Cho (718) 986-8442 kpcny@gmail.com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John E. Jho (702) 296-9193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Jae Hyun Han (831) 9207043 jhanrev@gmail.com

**총회장: 유재일 목사      서기: 최중현 목사      고시부 부장: 조성훈 목사      고시부 서기: 조용철 목사**



< 만남과 만남 >

목회서신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주님과의 만남, 세상의 소금, 맛남의 세상

1. 인생의 3번의 만남

인생의 한평생은 만남의 연속, 만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3번의 만남 가운데 살아갑니다.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개인의 자유선택의지와 상관없는 숙명적인 만남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평생 상팔자로 살아가지만, 나쁜 부모를 만나면 평생 고생하며 살

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의지적 결단에 따라, 자유선택의 여지가 있는 만남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나쁜 스승을 만나면, 별 볼일 없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전적으로 의지적 자유선택이 보장된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평생의 행복과 불

행을 좌우합니다.

2. 기독교의 3번의 만남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주일에 만나고, 수요일에 만나고, 금요일에 만나고, 새벽마다 만나고, 구역, 목장모임에서도 만남입니다. 이러한 만남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3번의 만남이 있는데,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다. 만나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만남입니다.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인간중심적인 만남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오래 갈수록 부패한 냄새만 풍깁니다. 둘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다. 만나면 향기가 나고 좋아 어쩔 줄 모르지만, 금세 시드는 만남입니다. 풀은 마르기 마련이고, 꽃은 아무리 화려해도 10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화려함만 있고, 체면치레나 형식적 만남은 결국 공허함만 남기고 시들고 맙니다. 셋째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며, 힘들 때는 맘도 닦아주고, 상대방의 기쁨이 마치 내 기쁨인 양 축하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만남입니다.

3. 주님과의 만남

인생의 3번의 만남은 인간적, 육신적인 만남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 영적인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저 세상, 천국에서의 영생복락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3번의 만남 가운데, 인간중심적 비린내 나는 생선 같은 만남, 공허함만 남기고 시들고 마는 겉치레적, 형식적인 꽃과 같은 만남이 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서로의 기쁨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4. 소금과 맛남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마 5:13),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막 9:50)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골 4:6)고 했습니다. 비정하고, 부정하고, 매정하고, 몰인정하고, 사랑이 메말라 무미건

조하고, 심고고, 맛있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 맛있는 맛남의 세상으로, 가는 곳마다 분쟁과 갈등, 투쟁과 분열이 충만하고, 파멸과 멸망의 길로 치달고 있는 이 세상을 소금 고르듯 항상 은혜스러운 말로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 맛남의 세상을 만들라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과 비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의 모범으로,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몸소 실천하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돌아가시므로, 은혜스러운 말씀,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하시므로, 하나님과 화목, 화해하게 하시고, 인간들도 서로 화목하게 하시므로 만남과 맛남의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가는 곳마다 화해, 화목하는 맛남의 삶, 맛남의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jaekunlee00@hotmail.com

“세상 일깨운 영적 거목” 설교 박희민 목사

LA지역 한인목사들, 빌리 그레함 목사 추모예배

빌리그레함 목사 추모예배가 26일 오후 5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한기형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상임회장) 인도로 시작, 임승진 목사가 기도,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환영 인사했다.

이어 류종길 목사(미성대학교 총장)이 약력소개, 최순복 권사(여성홀리클럽회장)가 성경봉독, 목사중창단이 추모찬송 했다.

이날 설교는 박희민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국제총재)가 ‘주님의 충성된 종’(히11:4)이란 제목으로 했다. 박희민 목사는 “빌리 그레함 목사는 영적으로 세상 일깨운 영적 거목이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자문하고 기도하고 상담해주는 정치적 영향력도 지대했다”고 소개했다.

박 목사는 “빌리그레함 목사는 일생동안 185개국 다니셨고 2억1천만이 그의 메시지 들었다. 개신교역사상 가장 많은 이에게 복음전한 주의 종이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99세로 세상 떠났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 전해주고 있다. 그는 인간의 실존을 꿰뚫고 도전했다. 복음이 인류 희망이라고 외쳤다. 성경의 능력 확신한 주의 종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이야기 구원의 스토리라고 성경을 이야기했다. 그의 메시지는 복음적이고 열정적이고 인간의 희생을 가져오는 메시지였다. 가슴이 불타는 걸 경험한다. 복음이 찌르고 쪼개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빌리그레함 목사 추모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박 목사는 또 “한인커뮤니티와 한국과 긴밀한 관계 맺고 있다”며, “52년도 한국방문, 56년도 서울운동장에서 대중 집회를 했다. 73년도 여의도 110만 83년 100주년 집회를 열었다. 피 선교국가였던 한국교회가 미국다음으로 선교국가로 변화했다. 항상 겸손함에 머물렀고 진리에 목말랐고 자기성장에 게으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였다. 많은 영적 리더가 돈 여자문제로 스캔들 일으키는데 빌리 목사는 그런 적이 없었다. 네 번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들을 것인지 조절을 맞추었다.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빌리 목사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참여할 지어다, 칭찬받고 상급 받는 종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이정근 목사(미성대학교 명예총장), 박성근 목사(로스앤젤스 한인침례교회 담임), 민종

기 목사(충현선교교회 담임)가 추모사를 전했다며 노경건 선교사(글로벌메시야 선교회)가 추모가를 불렀다.

이날 예배는 샘신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플러신학교 코리언센터 개원식에서 웨더 콰이어(플러 한인학생 합창단)가 찬양하고 있다. 원인은 개원식이 열리기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크레버튼 총장과 김창환 코리언센터 원장의 모습

한국 교회와 협력 다짐 플러신학교 코리언센터 개원식

플러신학교(총장 마크 레버튼 박사) 코리언센터 개원식이 2월 26일 오후 2시 분교 트래비스 오디토리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김창환 코리언센터 원장(공공신학 교수) 환영사와 플러 체플 워십 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개원식은 신학대학원 학장대행 마리아 톰슨 박사(조지 엘턴 래드 신약학 교수)가 기도했으며 수석 부총장대행 매리 클레멘트 박사(에블린과 프랭크

프리트 임상심리학 교수)가 성경 봉독했다.

이어 마크 레버튼 박사가 에베소서 2장 4-14절을 설교했다. 이어 웨퍼드 콰이어(플러 한인학생 합창단)가 특송했으며 김창환 원장이 코리안 센터 비전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프리젠테이션했다.

이어서 박희민 목사(전 나성영락교회 담임/전 플러신학교 이사)가 격려사를 전했다으며 김창환 원장이

교수진과 스태프 소개, 그리고 신학교대학원 학생 스코트 선취스트 박사가 기도와 축도를 했다.

한편 이날 개원식이 열리기전 코리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김창환 원장은 코리언센터는 “첫째, 기존에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재정비할 것 둘째, 재학생을 케어하고 동문들과 관계를 돈독히 할 것 셋째, 지역교회와 협력해 나가며 평신도들을 위한 신학강좌 개설 넷째, 신학적 바탕으로 연구하고 출판하는 역할 등으로 미국내 한인교회, 한국교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교회적 문제와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깊이 있게 연구 발표해 교회와 동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크 레버튼 총장은 “플러신학교는 한국교회와 한인학생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분교가 최대한으로 한국교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한인총회, 4월 정기총회 앞두고 발빠른 대처

UMC 특별위원회 구성, 동성에 정책 변화 예고

연합감리교회(UMC)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동성에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동성에 정책을 결정하는 2019년 임시특별총회를 열기로 예정하자 UMC 한인총회도 아울러 바빠졌다.

UMC 한인총회는 오는 4월 9일부터 4일간 “복음으로 희망을 여는 한인 연합감리교회”라는 주제로 아

플러연합감리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연다. 이번 한인총회에서는 ‘교단 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만남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인총회는 지난해 정기총회가 열린지 두 달 만인 6월 시카고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동성애를 허용하

는 UMC 장정의 변화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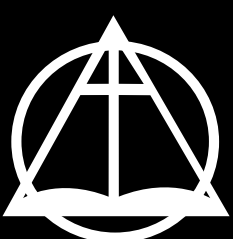
한편 2016년 총회 결정에 따라 총감독회는 9개국에서 온 32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Commission on a Way Forward)를 구성했으며 32명 위원 중 한인으로서 UMC 한인연선교회 전국연합회 김명래 총무가 유일하다.

특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3가지 제안으로 전통적인 모델, 중도적인 모델, 다양한 브랜치 모델 등 세 가지 모델을 구체화 시키고 있다. 이 안들은 총감독회에 제출되며 총감

독회는 특별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하고 책임적인 안을 2019년 2월에 열리는 임시특별총회에 상정한다. 총감독회는 7월까지 제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특별위원회는 마지막 안 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번의 회의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은 1972년 이래 모든 사람은 존엄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동성애의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명시하고 있다.

(10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8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8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8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를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8년 5월 18(금) - 21(월)  
2) 고시 장소: Old Westbury, New York, US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팔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2)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시편 110:1-7  
(2) 신약 주해 - 로마서 4:17-25  
(3) 논문 제목 - 개혁주의 관점에서 톨라이트의 뉴 퍼스펙티브를 평가하라.  
(4) 설교 본문 - 누가복음 16:19-31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② 고시 기간 중 설교원고 7편을 제출.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자에게 이메일 할 것.

③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④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⑤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필자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⑥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⑦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JohnJhoTExegesisPaper.pdf)  
⑧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8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영한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FCPCNY (재시금 \$100)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8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인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42회 총회기간(5월22일-25일) 중에 합격서류 수여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장은 고시부 서기 조용철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9일-21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2)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조용철 목사(Rev. John E. Jho) / Email: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주소: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U.S.A. / 전화: (702) 296-9193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조성훈 목사 (718) 986-8442, kfpcny@gmail.com  
2) 고시부 서기: 조용철 목사 (702) 579-7576, drjho@hotmail.com  
3) 고시부 회계: 한재현 목사 (831) 9207043, jhanrev@gmail.com



# 동부교계 게시판



## 뉴욕목사회 기도회 및 세미나

제 46회기 뉴욕한인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는 '종교개혁가들의 발자취를 찾아서/스코틀랜드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를 위해 기도회와 세미나를 갖는다. 일시는 3월 5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 세미나 주제는 '종교개혁과 스코틀랜드'이며 강사는 문석호 목사.

▲문의: (636)579-0067

## 시니어 스캐치교실 & 북클럽 개강

패밀리리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시니어 스캐치교실 & 북클럽이 3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각각 열린다. 전액 무료이며 재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개강일은 3월 7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뉴저지 사무실.

▲문의: (201)242-4422

## 미주 두란노 어머니학교 뉴욕 19기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주제로 열리는 제 484차 미주 두란노 어머니학교 뉴욕 19기 행사가 3월 17일과 18일, 24일과 25일 뉴욕참교회(담임 문덕연 목사)에서 열린다. 시간은 토요일은 오후 6시, 주일은 오후 5시. 참가비는 교재와 식사 포함 120달러.

▲문의: (917)880-0377지역총무 김에스터, (347)907-1115이은경

## 기독교영화 "순종" 상영

기독교인터넷 방송인 CBSN(대표 문석진 목사)이 창간 3주년 기념으로 기독교영화 "순종"을 상영한다. 일시는 3월 25일(주) 오후 6시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 입장료는 5달러. 배우 최수종과 최강희가 내레이션으로 참여한다.

▲문의: (718)414-4848



이노비 음악 봉사자들이 맨해튼 UES 양로원에서 공연하고 있다.

## 이노비, 양로원서 무료 힐링콘서트

문화복지 NGO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2월 26일 오후 3시30분, 맨해튼 UES 양로원(구 드윗양로원)에서 무료 힐링콘서트를 열었다.

이 양로원을 2011년부터 꾸준히 방문한 이노비는 무료 공연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께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공연은 피아니스트 김은실

이 음악감독을 맡고 소프라노 김리나 씨와 프렌치 호른연주자 윤아영, 플루티스트 권민지 씨가 봉사로 함께 해비제의 미뉴엣, 쇼팽의 녹턴과 오솔레미오, 에메이징 그레이스와 대니보이 등 친숙한 곡들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

후원문은 enobinc@gmail.com이나 (212)239-4438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이노비)

(9면에서 계속)

그 후에 총회는 동성 결혼을 주례하거나 동성에 목회자들이 스스로 동성에 관계에 있다고 밝히는 것도 교회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 연합감리교인들은 이러한 교단의 정책에 반대

하고 있으며, 심지어 2016년에는 스스로 동성애자라 밝힌 목사를 감독으로 선출했다. 교단 사법위원회는 이는 교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김성국 담임목사(앞줄 왼쪽 6번째)가 함께 기념촬영 했다.

## 명예권사 추대, 장학금 수여 퀸즈장로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설립 44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오후 4시에 기념예배를 드리고 명예권사 추대와 장학금 수여를 했다.

김성국 목사는 이날 로마서 1장 13-17절을 본문으로 "복음을 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성국 목사는 설립 44주년을 맞아 "지나온 44년보다 앞으로의 44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다하자"며 퀸즈

장로교회가 김성국 목사를 중심으로 추구하고 있는 다민족 선교 비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기도는 이규성 장로가 특송은 헤리티지 콰이어가 맡았다.

명예권사는 총 12명, 장학금은 초등부 2명, 중등부 6명, 고등부 7명, 청년부 13명 등 총 28명에게 수여했다. 명예권사는 다음과 같다.

남효순, 강현홍, 문현기, 손진수, 김중희, 조정숙, 이태정, 김영복, 이병희, 임질례, 문옥필, 최소자. (유원정 기자)

## "어머니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라" 글로벌한인여목회 주최 2월 어머니기도회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권금주 목사)가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라는 표어로 진행하는 어머니기도회 2월 모임이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 뉴욕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말씀은 한재홍 목사(뉴욕신광교회 원로)가 사무엘상 2장 6-8절을 본문으로 "어머니는 우주다"란 제목으로 전했다

한 목사는 "어머니는 가족 이웃 나라와 세계를 품는 실체가 되어 한다"며 "그러려면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하며 그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머니의 기도의 힘에 있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도응답 사무엘을 출생과 남매의 축복을 언급하며, "하나님은 죽이 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어머니들은 자녀들에 대한 축복권이 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의 언어로 양육해야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는 어머니가 되어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 목사는 종부로서 12번의 제사를 드렸던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 많은 핍박 가운데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자신이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음을 간증함으로 참석한 모든 어머니들의 심금을 울렸다.

예배는 마요셉 전도사 찬양, 사회 나병자 목사, 설교 한재홍 목사,

간증 안경순 목사, 합심기도 권금주 목사, 헌기도 심화자 목사, 광고 최근선 목사, 축도 전희수 목사 순서로 진행했다.

안경순 목사는 간담으로 간기증자를 기다리던 목사가 수술 받고 완쾌된 것과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 장애우 어머니가 어머니기도회에 참석해서 장애자녀가 책을 편찬할 수 있게 된 것 등 승리의 간증으로 어머니기도회의 중요성과 역사하심을 간증했다

권금주 목사는 합심기도회에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이나 행동, 감정으로 상처로 자녀를 양육했던 부끄러움을 회개하는 기도로 시작해, 고국 대한민국과 미국, 뉴욕교계, 글로벌여목회와 뉴욕어머니기도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성령 충만함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게 해달라 간절히 합심 기도했다

2부 친교는 오찬기도 감사사 목사의 오찬기도 후 오찬을 나눴으며 이어 글로벌뉴욕어머니합창단 연습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같이했다.

3월 어머니기도회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기쁨과영광교회에서 열린다.

한편 동 연합회는 글로벌뉴욕어머니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모든 어머니들로 연락처는 (646)247-8258.

(기사제공: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 "실버선교는 후반전을 승리하는 것"

###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26기 개강예배

뉴욕실버선교교회(회장 김재열 목사) 산하 뉴욕실버선교학교 제26기 개강예배가 "가드지 보내드리 하자"라는 주제로 2월 26일 오후 8시 뉴욕늘기쁨교회(담임 김홍석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김재열 목사는 "실버선교는 후반전을 승리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동서양이 틀리는데 동양은 동쪽이라고 그런지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강조하는데, 서양은 해가 지는 것을 강조한다. 해가 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온 천지를 붉고 찬란하게 물들이는 것이 일몰이다. 실버선교는 인생의 황혼을 물들이는 것이다. 전반전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후반전을 아름답게 일몰로 물들이면 승리하는 것"이라며 실버선교 훈련을 통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황홀하게 물들이기를 기대했다.

개강예배는 김경열 목사(현원원장) 인도로, 살롬찬양단의 경배와 찬양, 기도 양민석 목사, 특송 김봉규 목사, 설교 김홍석 목사, 헌기도 이준성 목사, 헌금송 송소피아 전도사, 환영사 김재열 목사, 무용 필그림무용단(단장 최윤자), 강사 소개 김경열 목사, 광고 장충현 장로, 축도 한재홍 목사(이사장)의 순서로 진행했다. 이어 2부에서는 장충현 사무총장의 인도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김홍석 목사는 "동행하는 삶"(창 5:21-27)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개의 예화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했다.

김홍석 목사는 너무나 영리해 던진 공을 한번 이상 안 물어 오며 산

책을 나가도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진돗개가 아니라, 늘 주인의 반 발 앞에 서서 앞서지도 뒤쳐지지도 않으며 오직 주인에게 집중하는 보호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며, 마지막으로 남은 날을 계수하며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사무처장 장충현 장로는 뉴욕실버선교회 창설멤버이며 지난 12년 동안 훈련원으로 수고한 이영승 목사가 지난 2월 5일 별세했음을 알렸다.

뉴욕실버선교교회는 4월 30일까지 10주간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늘기쁨교회에서 열린다. 하루에 2회 강의를 진행하는데 김홍석, 김재열, 김성기, 송병기, 장동일, 민상석, 최장섭, 이재봉, 최윤섭, 양민석, 조원태, 이지용, 한재홍, 장봉의 등 목사들과 전문 사역자들이 선교에 대한 영성과 정보,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선교기술을 지도한다.

2004년 시니어들의 선교동원을 위해 조직된 뉴욕실버선교회는 같은 해 1기 실버선교훈련을 시작으로 불학기와 가을학기 연 2회 교육과정이 지난 14년 동안 진행됐으며 650여명의 시니어들이 수료했다.

한편 26기 뉴욕실버선교교회는 종강후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과테말라에서 단기선교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김경열 목사 (917-963-9356), 장충현 장로 (646-309-1787)에게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실버선교학교 26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가 주최한 2월 어머니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 교회

<b>뉴욕부러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일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후 8:45 금요기도회: 오전 05:30 성령훈련: 오전 10:00 화, 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b.org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해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b.org	<b>뉴욕사백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목요일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lee@yahoo.com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 목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2FI,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영어 예배: 오전 10:45 수 목 예 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 Fax: (718)358-7789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www.kapcc.org	<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http://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718)406-7577, (718)93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tioch.com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3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 요 전 영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10: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8: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b>주비성교회</b> 담임목사: 이규분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영어예배: 오후 5:00 목요일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b>퀸즈한인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RI-SAO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 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목회: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church.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b>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b>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목 영 모 임: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서늘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n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인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b>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멕시코 번식 신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1, 2부 새벽기도회 생략) Tel: (52)333-3411 E-mail: hani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			



# “모범적 지방회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 순복음 LA지방회 정총, 임현철 지방회장 연임

2018년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 총회(총회장 진유철 목사) LA지방회(지방회장 임현철 목사) 정기총

회가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22일 오전 11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EM 예배

실에서 열렸다.

임현철 목사(지방회장) 사회로 열린 정기총회는 총무보고, 회계보고가 있었으며 임원선출이 있었다. 임원선출 시간에는 임현철 현 지방회장을 참석회원의 박수로 연임을 결정했다. 본 회의 지방회장 자격은 조직교회의 담임목사에 한해 부여된다.

임현철 목사는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도록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연합, 동거,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지방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LA지방회가 북미총회 산하 지방회 중 가장 모범적인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총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2018년도 지방회 총무에 박찬욱 목사, 회계에 양영모 목사를 지명했다.

총회는 임현철 지방회장의 기도로 마쳤다.

한편 총회가 열리기전에 드린 예배는 서미수 목사(지방회 총무) 사회로 시작, 이상호 목사(리버사이드 주님의기독교회 담임)가 기도했으며 임현철 목사가 ‘연합의 축복’(시133: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진유철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순복음 LA지방회 정기총회에서 임현철 지방회장이 2018년도 임원을 소개하고 있다



나침반교회에서 열린 신년회복사경회에서 감사 이재학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착한 청지기로 살라!” 주제

## 나침반교회, 이재학 목사 초청 신년회복사경회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는 이재학 목사(국제디모데성경연구원 대표) 초청 신년 회복 사경회를 23일과 24일 이틀간 개최했다.

본 교회 박종진 목사의 사회, 에벤에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된 첫날 집회는 에이레네 찬양팀이 찬양, 전준홍 장로가 기도했으며 김혜영 권사가 성경봉독 했다.

이어 민경엽 목사가 감사소개를 했다.

이날 이재학 목사는 “착한 청지기가 있는 반면 착하지 않은 청지기가 있다. 청지기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다. 청지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시간 재물은 사 메시지의 청지기 외에 가정의 청지기, 자녀의 청지기, 생각의 청지기 등 많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선한 청지기의 삶과 시간의 청지기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청지기에 대한 설명을 풀어 나갔다.

그는 “청지기의 특권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신 것이다. 그리고 청지기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교회공동체와 세상을 섬기도록 책임을 맡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한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할 삶의 네 가지 영역이 있다 그것은 우리 몸은 하나님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우리 것이 없고 하나님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시간의 청지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리 삶에서 시간을 때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간을 허락 해주셨다”고 말하며 “시간의 청지기는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선물인 시간 허비하지 않고 소중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시간관리 잘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학 목사는 둘째날 새벽집회는 ‘재물의 청지기’, 저녁집회는 ‘은사의 청지기’, ‘메시지의 청지기’라는 주제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CCM듀오 사랑이야기 콘서트가 동양선교회에서 열렸다

# 탈북엄마와 중국아빠 자녀 3만명 위해

## CCM 듀오 ‘사랑이야기’ 콘서트

CCM 듀오 ‘사랑이야기’(김현중 선교사, 김재중 선교사) 콘서트가 동양선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2월 21일 오후 7시30분에 열렸다.

이날 콘서트에서 사랑이야기는 ‘그대를 향한’, ‘주님의 숲’, ‘아버지 사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등을 찬양했다.

김현중 선교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녀들”이라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꿔

가는 나무들이다. 그 나무의 그늘 아래 지친영혼들이 기릴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콘서트는 중국에 있는 탈북인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아픔과 절망 속에 방황하는 3만여명의 탈북자 비호로 자녀들을 위한 사랑이야기 사역의 일환으로 열렸다.

<박준호 기자>

# 라크마 오페라 ‘운동’ 주 앵클 공연

## 3월 2일 LA한국교육원, 연출 클라라김

뮤지컬 오페라 ‘운동주’ 앵클 공연이 3월 2일 LA한국교육원에서 열린다.

뮤지컬 오페라 ‘운동주’는 대한민국의 시인 운동주(1917-1945)의 시와 생애를 바탕으로 한국 작곡가 황성진이 운동주의 시를 발레 각색해 곡을 붙인 창작 뮤지컬 오페라다.

2014년 일본 초연 이후 LA를 대표하는 음악단체인 LAKMA(Los Angeles Korean 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가 콘서트

형식으로 2015년 디즈니 콘서트를 선보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지난 2017년 10월에는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LA 한국문화원 아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뮤지컬 오페라 형식으로 미주 초연된 바 있다.

이번 공연은 내년 2019년 3.1만세 운동 100주년을 맞아 “3.1만세 운동 UN/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추진” 운동이 일고 있는 것을 계기로 이 공연을 통해 미주 한인 동포에게 더욱 더 민족의식을 고취

# 서부교계 게시판

**주마음교회 부흥회**  
주마음교회(담임 이석주 목사)는 지난 24년간 선교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전쟁을 치루면서 아프리카 5개국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평욱 선교사를 초청,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부흥회를 3월 9일(금)부터 11일(주)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9일 오후 7시30분, 10일 오후 7시, 11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문의: (213)273-5531

**나성영락교회 창립기념예배**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는 설립 45주년 기념예배를 3월 4일(주) 예배시간에 갖는다.  
▲문의: (323)227-1400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합창제**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합창제가 3월 4일(주) 오후 4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23)931-9133

**샌디에고 한빛교회 옹기장이 찬양콘서트**  
샌디에고 한빛교회(담임 정수일 목사)는 옹기장이 찬양콘서트를 3월 7일(수)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문의: (858)874-2412

**달라스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설립기념 및 이전감사예배**  
달라스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담임 권성철 목사) 2536 Valley View Lane, Farmers Branch, TX)는 교회 설립 23주년 및 교회 이전 감사예배를 3월 4일(주) 오후 5시에 갖는다.  
▲ 문의: (214)238-2003

**로고스교회 설립기념 감사예배 및 임직식**  
로고스교회(담임 신동수 목사)는 설립 39주년 감사예배 및 명예권사,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을 3월 4일(주) 오전 11시에 갖는다.  
▲문의: (626)798-9100

3.1. 만세운동 99주년 &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념  
**오페라 운동주**  
OPERA YUN DONG JU  
THE SKY AND THE WIND AND THE STARS AND THE POETRY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Friday, March 2, 2018 @ 7:00pm  
Korean Education Center  
68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For more info: yundong2018@gmail.com | 213-815-5634 | 213-392-3133  
Ye Voices / Ye Entertainment / LA Master Singers / LA Master Orchestra / LA Young Players

시적이고 역사적에 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무대를 다시 올리려 한다고. 이 뮤지컬 오페라 ‘운동주’는 내용 가운데 만세 운동을 연상시키는 장면과 시인 운동주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며 지은 시들이 감동을 준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이 공연의 연출을 맡은 클라라김은 “LA에서 활동 하는 음악인들이 의미 있고 좋은 일에 앞장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뭉쳤다”며 “미주 한인단체와 기관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공연출: 클라라김인 스키훅: 조지현 △지휘: 전창환 △피아노: 김경미 △출연자: 동주 황호진 / 문규 김경태/여학생 김미진/어머니 양유진/일본인 의사 조지영/형사1 손종수/형사2 장상근/순이 조은아/시인 김신영.  
(기사제공: 라크마)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949)854-4010 / E-mail: nkgd@bkc.org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nrgscca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2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한인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영아반(공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bkc.org	<b>대동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품속에 귀한 영혼을 심어주는 선교”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www.youngnak.com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562)691-069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하방)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310)749-4756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베델한국교회</b> 담임목사: 김한호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성령회: 오전 9:15, 11:3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446-6200, Fax: (714)446-6207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b>LA 복음연합감리교회</b> 담임목사: 이영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성경공부 오후 7:3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cm.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www.bkc.org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1-0691, LA - Bre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역(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예배: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	<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b>은혜한국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양예배(토요일):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Ct.,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경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inchurch.com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org	<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0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liv.com / e-mail: pastor@iacorneston.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진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영)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5:30(영년) 주일학교: 오전 10:00 영양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5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사순절, 어떻게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참회의 시간을 보내는 사순절(四旬節, 2월 14일~3월 31일)이 지난 14일 시작됐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46일 전인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해 '종려주일'을 거쳐 '부활주일' 전야까지의 40일을 말한다. 이 기간에 있는 일요일(6회)을 제외하면 꼭 40일이 되기 때문에 사순절이라고 한다. 성경에서 40이란 수는 의미가 깊다. 예수께서 40일

제할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적었다. 다니는 교회에서 사순절을 금식기간으로 정한 뒤 금식을 통해 모은 헌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알려진 폐친도 있었다. 김판씨는 "우리 교회에서는 금식으로 모은 헌금을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는데 쓸 예정"이라면서 "마태복음 필사도 함께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김씨는 마태복음 1장을 필사한 사진을 올려 다른 폐친들의 호응을 얻었다.

도의 고난을 깊게 되새기려고 한다"면서 "하루 한 끼 절식과 성경 통독 및 암송, 특별 새벽기도에 동참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박연희씨 또한 TV를 켜지 않고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겠다고 했다.

김수정씨는 '사순절 말씀 읽기표' 사진을 올리고 "사순절에 맞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묵상하기로 했다"면서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순서를 정해 한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웃만 찢기 말고 심장(마음)을 찢어라..."(요엘2:13)는 말씀처럼 흠어진 마음을 모아 주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사역자들은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단식과 기도, 구제의 시간으로 보낼 것을 제안한다. 아무런 목표없이 절식이나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예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작은 물질로 이웃을 돕는다면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될 것이다.

또 사순절은 평소보다 많은 영성훈련을 쌓을 것을 권면 했다. 가족이 함께 새벽기도나 심야기도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가족이 신앙성경 읽기 혹은 신앙성경 옮겨쓰기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생활자세다.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역사적 현장, 초대 교회의 발자취를 살피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재정립하는 마음으로 성지를 순례하는 것도 의미 있었다.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 다 선교사들의 선교와 순교의 발자취가 담긴 기독교 성지들이 많다.

이와 함께 가정생활 중 불필요한 소비는 없는지 점검하고 개인의 구원과 연관된 목상을 하며 성금요일엔 가족이 함께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성도의 마음을 표현해 보자. 가정예배는 예수의 수난 행적과 가상철연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선교한국 2018 대회' 8월 열린다

“하나님 나라 재창조”...청년·대학생 선교집회로

청년들의 선교역량 강화를 위한 '선교한국 2018 대회'가 'Re-'를 주제로 오는 8월 6-10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다.

1988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선교대회는 선교단체와 일선 교회들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주최하는 국내 최대의 청년·대학생 대상 선교집회다. 앞서 열린 15차례 대회에 총 6만2282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57%(3만5576명)가 선교사역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했다.

선교한국 2018 대회 조직위원장 김종호(IVF) 목사는 27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재창조의 의미에서 주제를 'Re-'로 정하게 됐다"며 "단순히 선교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선교현장에 가야 하는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선 '다이나믹 배움터' '미셔널 멘토링' '미셔널 바이블'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선택 강의도 마련돼 있다. 다양한 사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목사와 선교사, 신학자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글로벌 미션 트렌드"를 주제로 한 순서에서는 인구 증가와 인공지능의 발전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선교전략을 논의한다. 대회 저녁집회 때는 패트릭 펄(OMF) 선교사와 이재훈(은누리교회) 목사, 이현모(침신대) 교수가 선교 본질과 당위성 등에 대해 강의한다. 대회 참가 신청은 다음 달 5일부터 선교한국 홈페이지(missionkorea.org) 등을 통해 가능하다.

## 복음의전함, 광고 캠페인 유럽까지 확장

가수 소향·공민지·박지현이 재능기부

하나님을 세계에 전하는 '복음광고'가 북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이어 유럽으로 뻗어나간다.

광고로 하나님을 전하는 (새복음의전함(이사장 고정민 장로)은 21일 서울 은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사역 방향을 소개했다.

먼저 3월 한 달간 유럽의 관문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대형 기둥에 삼면으로 복음광고를 설치해 '6대주 광고선교 캠페인'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유럽 편 복음광고에는 가수 공민지 소향 박지현 등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등의 광고 문구를 영어 독일어 아랍어로 번역해 설치한다. 광고 게재가 마무리되는 3월 31일 오후에는 유럽 20여 국가의 100여개 현지 교회 교인들과 함께 대규모 거리전도를 동시에 실시한다.

이와 함께 복음의전함은 '대한민

국을 전도하다' 캠페인도 5월부터 시작한다. 6대주 광고선교 캠페인의 한국내판이다.

대한민국 선교의 기착지인 경상권의 대표적인 도시 부산에서 5월 한 달 동안 펼쳐진다. 광고매체는 부산역 버스환승센터 내 버스쉼터다. 부산지역 교회들은 이 기간 교회 외벽에 복음광고를 걸어놓는 것으로 동참할 수 있다. 지역 교회들과 기독교단체들이 함께하는 거리전도도 열린다.

복음의전함은 이후 전라권(광주) 충청권(대전) 강원권(강릉) 제주권(제주) 경기권(인천)을 돈 뒤 내년 연말쯤 서울에서 대장정의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다.

고정민 이사장은 "복음의전함의 새로운 시도는 아직 진행 중이고 시행착오도 계속 겪을 것이지만 지금까지 기독교가 사회에 끼쳤던 건 강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데 분명 광고선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 “복음 사역자에 용기를”

슈퍼리어재단 선교대상·후원사업 공모

(재)슈퍼리어재단(이사장 김귀열)이 '제5회 선교대상 시상 및 후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시상은 선교 봉사 교육 애국 4개 부문에서 한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하는 사업(선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업(봉사), 하나님의 길과 진리로 교육하는 사업(교육), 국가와 민족을 위해 행하는 사업(애국) 등이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다. 시상 후원금은 수상이관별 단체에는 각 5000만원, 개인은 각 2000만원이다. 공모는 다음 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시상은 5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슈퍼리어타워 슈퍼리어갤러리에서 열린다. 지

난해에는 잠비아 이치방가노 드림 미션 김서영 선교사와 캄보디아 해브론 메디컬센터 김우정 원장 등이 수상했다.

2014년 시작된 슈퍼리어재단 선교 대상은 지난해까지 한경직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 진행하면서 '한경직목사기념상'으로 시상돼 왔다. 올해는 패션유통전문기업인 ㈜슈퍼리어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슈퍼리어재단 선교대상'으로 명칭을 바꿨다. 재단 관계자는 20일 "국내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의 신청을 기다린다"면서 "이번 시상식이 그들의 복음 사역을 격려하며, 용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02-2192-3130).

한 회장은 "빅뱅이론에서 말하는 온 우주의 에너지와 물질이 가뉘져 있는 태초의 특이점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폭발 결과는 항상 무질서이며 천문학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질서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화가 없는 완벽한 창조를 하셨다. 창세기 1장에는 처음부터 동식물을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열 번이나 나온다"며 "진화창조론은 생물학적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믿으면서 성경을 진화론에 끼워 맞추는 타협이론"이라고 비판했다.

캠프에서는 '진화론은 과학인가' '타협이론의 실제'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창조과학 Q&A 등이 이어졌다. 한 회장은 "현대 내성적 성경에 있어 혼탁해진 시대"라고 진단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창조 신앙을 갖추고 잘못된 지식에서 탈피해 영적 야성과 지적 영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게 이번 캠프의 취지"라고 밝혔다.

##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당선

우여곡절 끝, 김노아씨 78표 차로 눌러

엄기호(71·성령교회) 목사가 제 24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됐다.

엄 목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속회된 제 29회 총회에서 145표를 얻어 67표에 그친 경쟁 후보 김노아(79·서울세광중앙교회)씨를 78표 차로 눌렀다.

이에 따라 엄 대표회장은 임기 동안 이단성 논란, 선거관리위원회 파행 등 한기총 내부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됐다. 대

표회장 선거 후유증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엄 대표회장의 후보 불인정을 주장했던 김씨 측과 선거 중단을 요구한 증경 대표회장단 측이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방어진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엄 대표회장은 당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거와 관련된 일로 더 이상 사회법에 고소·고발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한기총이 불협화음으로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선거 관련법을

세밀하게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기총 내부에 이단성 인사가 없는지 외부 압력이 있더라도 철저히 파헤치겠다"면서 "(김씨의 허위학력 의혹 문제는) 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회 연합기구 일치와 내년 한기총 창립 30주년 기념사업도 엄 대표회장의 주된 과제로 꼽힌다. 그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연합과 하나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년 한기총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지역연합성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기독교 연합회와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직전 대표회장을 지낸 엄 목사는

사랑의교회 성도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기도와 전도로 섬겨줘서 감사하다"며 "폐막 후에도 강릉시와 사랑의교회가 협력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명희 강릉시장은 "평창올림픽을 개최하기까지 2년의 우치 실패 후 다시 도전하자"는 의지와 의견을 모은 시발점은 강기연을 주축으로 한 교회들이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올림픽 개최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했다"며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사랑의교회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를 하며 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그렇다.

영화엔 김 선교사 말고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힌두교 가정에서 자란 신도자가 부모에게 들을까 봐 화장실에 몰래 숨어 기도를 드린다. 음악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인생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는 메리와 마날리 모녀, 바나나합창단 단원이 된 후 가수의 꿈을 키우는 라울은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들이다.

'바나나송의 기적'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세필드다큐페스티벌 등 유수 영화제에 동시 초청을 받았다. 개봉 전부터 해외 공연 방송사들에 선판매되기도 했다.

## “아름다운 열매 맺는 올림픽 되길”

평창 동계올림픽 선교간담회 개최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22일 강릉소망교회(김현동 목사)에서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강기총·회장 서석근 목사)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강기연·회장 이철 목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선교간담회를 열고 섬김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사랑의교회 스포츠선교회(회장 전동균 집사)는 지난 9일부터 강기

연과 함께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릉 올림픽파크 초입에 위치한 소망장로교회에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400여명의 성도들이 국내외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외국인 이동 지원, 전도지와 기념품 전달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철 목사는 "이번 올림픽이 선교올림픽으로 쓰인 받을 수 있도록

## 음악 다큐 '바나나송의 기적' 내달 개봉

김재창 음악선교사 콘서트 열기까지 과정 담아

감동 음악 다큐멘터리 '바나나송의 기적'(연출 지혜원)이 오는 8일 개봉된다. '바나나송의 기적'은 열혈 성악가이면서 음악선교사인 김재창이 노래를 배워본 적 없는 인도 슬럼가 가족들과 함께 '바나나합창단'이란 이름으로 콘서트를 열기까지의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김 선교사는 곁에 있는 것조차 오염된다며 멀리받는 천민 출신 부모들을 모아 가족합창단을 꾸리기로 마음먹는다. 처음 연습실에 모인 이들은 타고난 음치 박치, 게다가

일하느라 바쁘다, 몸이 아프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로 결석이 잦다. 아이들에게 버럭 화를 내며 부모에게 당장 전화를 걸라는 김 선교사. 이렇게 무섭게 다그쳐 모은다고 합창이 된다.

영화에서 김 선교사는 아이들에게 '앵그리버드'로 불린다. 연습 때 결석하거나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또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무섭게 혼을 낸다. 그러나 그에겐 울컥하게 만드는 반전의 모습이 있다.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를 찾아가 설득하거나 눈높이 대화



# mission 선교의 창 (96)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 일꾼을 키우는 장학(獎學)사역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는 훌륭한 일꾼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대형교회는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다. 국가도 새로운 통치권자가 들어서면 청렴하고 실력 있는 일꾼을 찾기에 혈안이다. 현대 유감스럽게도 "사람은 많은 데 쓸만한 인물은 흔하지 않다"라는 것이 중론이다. 왜 다니엘이나 에스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이길 지도자 감들이 많지 않는가?

답은 간단하다. 일꾼들을 키우지 않기 때문이다. 탁월한 일꾼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인간 이기심의 발로이다. 좋은 일꾼은 어느 날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

터는 현재 성공관대학교 쪽문 근처에 있다. 그리고 현재는 양현고를 계승해 성공관대학교 유학대학 유학동양학과 학생 중 우수한 학생에게 양현재 장학금을 주고 있다. 장학금에 대한 역사와 사례는 나라마다 다양하다.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영국의 '모즈 장학금'이다. 이는 1902년부터 시작하여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

### 2. 장학 사역의 모범적 사례

1999년 뉴욕의 백민교회는 선교사로부터 A라는 학생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학생은 그 나라의 명문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

### 3. "Scholarship America"라는 장학재단

본 장학재단은 어빙 프래드킨(Irving Fradkin)에 의해 1958년에 시작되었다. 그는 원래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 이민 2세였으며 검안의(optometrist)였다. 그는 성장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그는 가난을 이기고 마을을 살리는 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그는 가난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위해 1달러 장학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그는 집집마다 돌면서 취지를 설명했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다. 신앙, 재능, 의지도 있는 데 공부할 여건이 안 되어 포기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확장 차원에서 매우 애석한 일이다. 미국 대학에는 110만의 유학생이 있다. 저들은 전 세계에서 왔으며 차세대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다. 미주 한인교회에서 조금만 힘을 모으면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

예컨대 북미주 4,700 한인교회에서 1년에 1명씩만 영적 자녀로 입양해 뒷바라지를 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산적으로 크게 버거워할 필요도 없다. 각 교회에서 장학 사역으로 1%의 예산만 책정해도 가능하다. 문제는 긍휼한 마음과 선교적 열정이다. 사랑의 씨앗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장학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가능한 원손이 하는 것을 모른 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남에게 베푸는 선행은 은밀할수록 좋다. 둘째, 장기적이어야 한다. 길거리 옛장수가 맛 배기 엿을 주듯 한 단회적인 장학사역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셋째, 장학금의 주인공은 지급자가 아니라 수여자라는 인식변화이다. 이에 지급자는 수여자가



## 볼리비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시145:19).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볼리비아 선교와 저희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 볼리비아는 1월 8일, 작년 12월에 인정한 새로운 법, 사회주의로 돌아가기 위해 시행하는 법으로 전도금지법, 집회 및 가정배 금지법, 등으로 인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의사들을 비롯하여 개신교인들과 교회들이 연일 금식기도하며 행진과 데모를 1월 21일까지 하였습니다. 다행한 것은 에보 대통령이 이 약법을 유예한다고 발표하였고 상원에서 이 법을 부결시켰습니다. 에보 대통령이 새해 연설에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TUPACATARI(인디언해방운동가)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라. 하늘에서 복(구원)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는 비만 내린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곧 백성이며 백성들이 구원자다"라고 말하며 반 기독교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14년차에 들어간 에보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해 3년전 무효 된 법 개정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려 하여 데모가 많아지고 있는데 2월 21일 대대적인 에보 반대 데모가 있었습니다. 또 미니 버스회사는 시가 운영하는 대형버스 확장을 반대하며 2월 7일 데모하여 소형 6인승 밴에 21명이나 타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시내 중심가는 매일 데모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2. 공부방은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10일 정도 방학에 들어갔다 1월 8일 교사연수회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2018년에 벨렌 공부방은 셀리아, 윌헬, 루시오, 이반, 카르멘, 로사가 530명을 돌보아야 합니다. 생명의빛 공부방은 자넷, 사무엘, 로사리오, 에리사벳, 마리아, 에드워드 등이 320명을 돌보아야 합니다. 만만치 아니한 일하기에 기도의 동참을 드립니다.

3. 2018년 여름성경학교 1월 10일-12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배우고 실습도 하였습니다. 카톨릭 문화 속에서 성장한 볼리비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믿으며 그들의 삶은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4. 비아차 에벤에셀교회는 학생들 대상으로 조금씩 교회가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에릭 마마니가(14살) 담석제거로 힘들어 했지만 퇴원 후 누나 다니엘리아와 에릭가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4면으로 계속)

세상은 각 분야에 탁월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훌륭한 일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러진다.

교회는 다음 세대를 내다보며 일꾼을 키우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활동한 자양분을 먹고 자란 대들보 나무처럼 역사 속에서 키워진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사람을 키우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 방편 하나가 있다면 바로 장학사역이다. 오늘날 소수의 교회나 단체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미약하고 단회적이며 순수성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되어진 관행적 장학사역으로는 좋은 일꾼들을 배양하기 어렵다. 장학사역에 대한 이상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 1. 장학금의 의미와 역사성

장학금의 사전적 내용은 "가난한 학생이나 우수한 학생에게 학비보조금으로 내주는 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종종 학문을 장려하는 의미로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 주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고려 때 국가감에 설치한 양현고를 일종의 장학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119년에 설치하여 판관(判官) 4명을 두었는데 이 가운데 두 명은 양현고 직속의 전지(田地)에 파견하여 세(稅)를 거두어들이게 하고, 나머지 두 명은 양현고에 남아 이를 받아들이게 했다고 한다. 조선에서도 이를 계승하여 성공관 유생들에게 식량을 제공했다고 전한다. 조선시대의 양현고 옛

도 그의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덩그러니 형제 둘만 남은 것이다. 그는 학업을 포기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이에 그 교회는 선교사를 후원하듯 기도하며 매달 일정액을 학생에게 보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매년 한 차례씩 방문하여 지도하며 격려했다. 원래 신앙심이 투철했던 그 학생을 대학을 졸업과 함께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했다. 그리고 선교사가 운영하는 신학교에 들어가 열심으로 공부했다. 그는 일정 과정을 마치고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에 다시 입학하여 졸업을 하였다. 그의 학업과정은 대학 분과 4년 말고도 신학과 정만 총 9년이 소요되었다. 학업 과정만 장학 13년이 걸린 것이다.

그는 결혼을 하였고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 그는 자립하였고 주의 신실한 종이 되어 목양하고 있다. 그는 영성, 지성, 덕성 그리고 헌신도 면에서 손색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놀랄 정도로 그를 쓰시고 계신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백민교회의 선교 내용이다. 본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에게 투자했으며 산술적인 수치에 매이지 않았고 한 번 딱 값 주듯 일회적이지도 않았다. 교회가 영적 아비 된 심정으로 홀로 설 수 없는 아들을 품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키워 세상 한복판에 내어놓은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칭찬 받을만한 일이다.

고, 피켓과 현금함을 들고 거리에 나서기도 했다. 그렇게 혼자 시작한 'Dollars for Scholars' 캠페인으로 그해 말 4,500달러를 모금했다. 당시 1달러는 지금의 8달러이며 주립대학 등록금은 약 200달러였다. 그는 이것으로 고교 졸업반 24명에게 100-3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년 뒤인 1960년 모금액은 17,000달러로 성장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금액 가운데 14,000달러가 '1달러' 기부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 장학금으로 70명을 대학에 보냈다.

캠페인 규모가 커지면서 프래드킨은 61년 '미국시민장학재단(CSFA)'을 설립했고, 합병 등 이런저런 계기로 명칭을 바꾸었다 2003년 지금의 'Scholarship America(SA)'로 정착했다. 미네소타 주 세인트 피터스에 본부를 둔 SA는 1958년 이래 지금까지 약 35억 달러를 모금해 220만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5년 말 1,100개 기부부 돈 미국 최대 비영리 민간 장학 교육 재단이 된 것이다. 프래드킨은 장학철학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야말로 황금이나 석유보다 더 소중한 미국의 자산이다. 장학금은 가난한 이들에게 거저 주는 시혜(hand out)가 아니라 그들을 더 높은 자리로 받쳐 올리는 것(hand up)이다."

### 4. 장학 사역에 대한 기독교 단체의 방향

자존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 맺음 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와 속히 이루리라"(이60:22). 장학 선교는 겨자씨 같은 성격을 띄고 있다. 처음에는 눈에 잘 안보이며 성장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나무가 나라 많은 열매를 맺듯 일꾼들이 자라나 자기 민족과 열방을 책임질 것이다. 이 이상 더 가치 있는 사역이 무엇이었을까?

장학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품는 것이다. 장학 사역에 대한 노하우는 서구 기관들이 한참 앞서 있다. 우리 한 교회와 단체들은 겸손하게 저들의 투명성, 합리성, 전문성, 전략성은 배울 필요가 있다. 감상적이고 주먹구구식이며 단발적인 장학 사역은 이제 멈출 때가 되었다. 위에 언급한 백민교회처럼 그리고 어빙 프래드킨(Irving Fradkin)이 추진한 Scholarship America 단체처럼 소리로 없이 한발자국씩 나아가야 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문제는 마음이

jrsong007@hanmail.net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특별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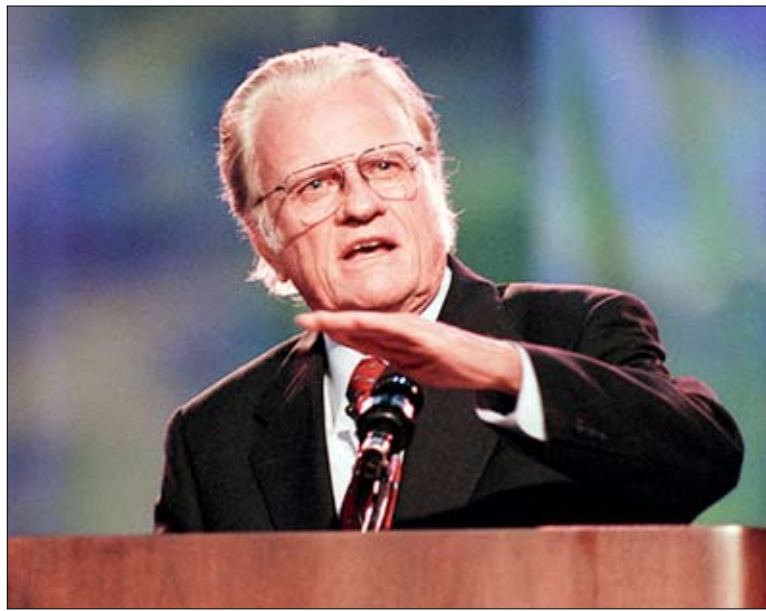
전호진 박사 (미얀마개혁장로교신학교 학장)



빌리 그레함과 한국동란 (상)

서론: 기독교적 관점에서 한국 동란의 의미 고찰

우리 사회는 1950년 6·25동란 이후 가장 심각한 전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쟁 불감증, 이념 불감증이 심각하다. 6월은 한국동란이 일어난 지 벌써 68년째이다. 서울에서 6.25를 만나고 3개월 동안 인민군 통치하에서, 밤에는 미군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 우물에 독약을 넣는다고 죽창 들고 "소년단" 단원으로 "장백산 줄기줄기"를 부르면서 우물을 지키며 밤을 새웠다. 처참한 전쟁을 경험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나라가 걱정되어 기독교적 관점에서 한국동란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빌리 그레함, 미국 복음주의, 메시아 비전의 동서냉전"(Jay Douglas, Billy Graham, American Evangelicalism, and the Cold War Clash of Messianic Visions, 1945-1962로, 2012년 뉴욕 로체스터대학교에 제출한 Ph. D 논문)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공산주의 등장과 한국동란은 미국이 겸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설교 아메리칸메시아주의...선민 미국은 세계 구원 사명과 동시에 책임 있음 역설

남을 돕고 있다. 한국도 베트남을 통일해 기대할 수 있는가? 구 베트남 정부의 호찌민은 남북을 막론하고 다 존경하였다. 북한에도 호찌민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베트남 통일도 일기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구 베트남 사람들은 외부인들이 호찌민 하면 화를 버럭 낸다. 사이공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배교품도, 전쟁도 모르는 세대들이 낭만적 유토피아니즘 미몽에서 깨어나기 바라다.

빌리 그레함 등장의 시대적 배경 2차 대전의 종결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을 만들어주었다. 2차 대전 때는 두 나라의 독일을 상대로 연합국으로 함께 싸웠던 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곧 냉전 시대의 막을 열게 된다. 세계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대립하게 된다. 미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기독교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 반면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종교를 말살하고 공산

이데올로기를 수출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1945년 미국 복음주의 진영은 소련 공산주의를 거의 사단적인 악의 세력으로 간주,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가장 앞장선 자는 빌리 그레함 목사였다.

빌리 그레함의 반공 메시지

빌리 그레함은 1949년 31세의 나이에 미국을 움직이는 부흥사로 부상하기 시작한다. 빌리 그레함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다. 조보 목사들도 할 수 있는 단순한 복음 메시지인데도 미국과 나아가 세계를 움직였다. 물론 배후에 기도하는 많은 신자가 있었다.

다글라스는 그레함의 메시지를 개인주의 - 자본주의 복음(individualist-capitalist gospel)으로 요약한다. 그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메시지이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로서의 미국과 미국의 세계적 사명을 강조하였다.

그는 "결단의 시간"(Hour of Decision) 방송 설교에서 인류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 설교하였다. 3천년의 역사에서 3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앞으로 다가올 핵전쟁의 위기도 설교했다. 당시 소련

그의 사상은 미국 우월주의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선민으로서의 미국은 세계를 구원할 사명이 있고, 동시에 그 사명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역설했다. 그는 이미 세계 경찰국가(police state)로서 미국의 역할을 설교하였다. 이스라엘의 언약 사상을 미국에 적용한 셈이다.

다글라스는 50년대와 60년대 초기 미국인 60%가 주일 아침 교회 출석하였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그레함은 미국의 도덕적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하였다. 미국은 선택된 나라지만 죄악이 관영함으로 회개하고, 철저히 "Back to God, and back to the Christ, and back to the Bible"할 것을 외쳤다. 공산주의 등장과 한국동란은 미국이 겸손하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설교했다. 그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반공(반공산주의) 메시지였다.

다글라스는 그레함의 반공 이념을 마니키안(Manichean)적 이원론 사상으로 정의한다. 마니키안은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우주관, 즉 우주를 선과 악의 전쟁터로 보는 세계관이다. 당시 미국 민주당은 평화주의 입장이었지만, 트루먼도 빌리 그레함과 같은 사상이었다. 트루먼과 맥아더는 한국

자본주의의 악과 모순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공산혁명을 전 세계로 수출하려는 이념이다. 그레함은 이러한 공산주의 이념을 anti-God, anti-Christ, and anti-American으로 보았다. 소련 메시아주의는 정통 마르크시즘과 구 러시아 제국의 부정적 유산이 합한 것이다. 우리는 '소련' 하면 전형적 공산주의 국가로 말한다. 다글라스는 공산주의 전봉가 조지 케난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한다:

"공산주의가 러시아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도리어 공산주의를 변질시켰다고." 러시아의 유산이 마르크시즘을 삼키고 말았다는 것이다. 구 차르 제국의 러시아 이미지는 정복, 독재, 인권탄압, 부정부패이다.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였지만 정교회 역시 타락하였다. 공산연구자 딩고 토마시(Dinko Tomasic)도 러시아 제국의 부정적 유산이 공산주의에 그대로 넘어갔다고 주장한다.

볼셰비키 혁명을 주도한 세력들은 처음부터 증오, 모욕, 불화, 무자비한 폭력, 배신, 거짓을 다반사로 하였다. 빌리 그레함도 전체주의적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적용한 순간부터 비 공산 세계를 포으로 취급하였고, 시작부터 세계혁명을 준비하였다. 스탈린은 세계 혁명에 자신을 바쳤다. 따라서 공산주의에는 평화란 불가능하다. 1936년과 1937년에 러시아 백성들은 자유와 기독교를 위하여, 스탈린에게는 이념적 도덕이 되었지만 2차 대전이 도리어 그를 살렸다. 그는 불화, 갈등, 증오, 고문을 자행하였다고 설교하였다.

정통 마르크시즘이 러시아화한 것으로부터 남침보고를 받고 "the sons of bitch"를 반드시 막아야 하면서 10초 만에 미군 파병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hijun01@hanmail.net

남을 돕고 있다.

한국도 베트남을 통일해 기대할 수 있는가? 구 베트남 정부의 호찌민은 남북을 막론하고 다 존경하였다. 북한에도 호찌민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베트남 통일도 일기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구 베트남 사람들은 외부인들이 호찌민 하면 화를 버럭 낸다. 사이공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배교품도, 전쟁도 모르는 세대들이 낭만적 유토피아니즘 미몽에서 깨어나기 바라다.

빌리 그레함 등장의 시대적 배경

2차 대전의 종결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을 만들어주었다. 2차 대전 때는 두 나라의 독일을 상대로 연합국으로 함께 싸웠던 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곧 냉전 시대의 막을 열게 된다. 세계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대립하게 된다. 미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기독교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 반면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종교를 말살하고 공산

은 이미 미국의 원자탄 비밀을 훔쳐 원자폭탄을 만들었다. 그레함은 소련을 전쟁광으로 보았다.

그는 1630년 청교도 목사 존 윈드롭(John Winthrop)의 "산 위의 도시"(산 위의 마을: 마 5:13)에 근거하여, 미국이 기독교 신앙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즉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미국이 그의 지론이었다.

그레함은 그의 이념을 아메리칸 메시아주의(American Messianism)로 표현한다. 그러나

의 은인이다. 트루먼은 철저한 칼빈주의 신자인 델레스 국무장관은 소련을 전쟁광으로 보았다. 그는 1630년 청교도 목사 존 윈드롭(John Winthrop)의 "산 위의 도시"(산 위의 마을: 마 5:13)에 근거하여, 미국이 기독교 신앙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즉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미국이 그의 지론이었다.

소련 메시아 주의와의 대결

그는 동서냉전을 영적 전쟁, 즉 아메리칸 메시아 주의(American Messianism)와 소련 메시아 주의(Soviet Messianism)의 대결로 보았다. 소련 메시아주의는 세계를

(13면에서 계속)

크리스티안은 1년 근무를 마치고 제대하여 예배 참석 후 교회 예배가 너무 그리웠다고 고백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호주 단기선교팀들이 전해준 성경책들을 선물 받은 교인들의 기뻐하는 모습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 단기선교팀이 왔는데 2년전 현 지인 교인을 통해 알 된 호주 엔 크

리스도교회에서 이번엔 우리 사역을 방문하게 되어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이 아닌 수고려 선교 사역 후 한 사역이었는데, 유난히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움직이며 사역하기가 좀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산에서의 사역이기에 사역하던 중 쓰러지기도 했지만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과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에 열심히 전 력하지 못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6. 대학교 전도를 통해 알게 된 베로니카 자매는 중국남자를 사귀다가 헤어져 상심하던 중에 아시아 사 람을 통해 복음을 듣고 누구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복음을 전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젊은이들은 보면서 사역의 기쁨과 감격을 느낍니다.

7. 의료 선교를 감당하던 의사 껍 집사님이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코이카를 통해 볼리비아에 2년간 근무를 하면서 틈틈이 사역에 동참해 주셨고 코이카 봉사단들이 임지로 가기 전 생명의 빛 교회에서 함께 공작과 활동하며 놀아주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적응해야할 껍 집사님 자녀들이 잘 적응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성장하기를 기도 합니다.

기도제목 1)남마다 성령충만하여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2)볼리비아가 정치 경제 사회적 으로 안정돼 가도록 3)공부방에서 자라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4)세워진 교회마다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5)볼리비아 교회와 지도자들이 말씀위에 바로 서 가도록 6)전도받은 대학생들의 마음에 복음씨가 썩이 뜨게 하소서

볼리비아 고산 라파즈에서 이근화, 김성제 선교사 드림 lapazbol@gmail.com



Table with church listings including: 갈보리장로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앨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샬롯장로교회, 시애틀평강장로교회, 안다루교회, 알칸사 제자들교회, 앵커리지열린문교회, 엘파소열린문교회, 영성장로교회, 킬린노루교회,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주예수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and 아리조나 기도원 매매.



### 기독교 경영 전략

####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3)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 기업 경영과 성경적 원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삶을 효과적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쓰여진 '교과서'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장면을 세베대의 아들들(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바로 다음 가는 두 지위를 주

자의 계획, 목적 그리고 목표들을 조직 내 다른 종업원들을 통해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마 20:25-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경영철학이 세상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첫째로, 예수님이 새로운 리더십과 경영 철학을 도입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영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지위나 권력을 사용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서 행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경영자가 조직 내에서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는 종과 같이 섬겨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

### 경영자는 섬기는 자의 자세로, 타인의 필요 위해 지위 사용해야

솔로몬은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잠언을 썼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세상의 철학과 진행방법에 기반하거나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경영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출발점은 세속적인 경영 철학과 성경적인 경영 철학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때부터이다. 마태복음 20장 20-28절은 세상의 경영철학과 예수님의 경영 철학이 전혀 다르

시길 간청했던 것이다.

세상의 경영 체계 내에서는 조직계층을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권력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을 보유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주된 이유이다. 또한 그녀의 간청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열 제자들의 반응은 분히 여겼다고 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세상의 경영에 대한 접근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있다. 실제로 경영의 전통적인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Getting work done through others)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 경영학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정의는 권력과 통제가 경영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도자와 경영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 '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런 방식으로 경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신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섬기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너희의 지위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섬기는데 우리의 지위를 가까이 사용하는 한 조직 계층상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없다는 점을 예수님은 암시하셨다.

dr.jameskoo@yahoo.com

### 아직 살만한 세상

엄마는 아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노심초사다. 텍사스주에 사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세 아이의 엄마 타나야 버나드는 최근 페이스북에 10살 막내아들과 나눈 대화를 적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던 엄마는 불현듯 최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떠올랐다. 그래서 아이에게 "총격대피 훈련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아이는 "누가 총을 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연습한 걸 말하는 거냐"고 묻더니 의기양양하게 "당연히 했다"고 답했다. 그래도 불안한 엄마는 아이에게 "어떻게 배웠는지" 물어보았다. 아이는 신이 나서 대화를 이어갔다. "선생님이 교실 문을 잠그면 검은색

종이로 창문을 가려야 해! 그리고 나면 내가 책상을 문쪽으로 밀 거야! 친구들은 내 뒤에 숨어서 총을 피하는 거지!"

엄마는 순간 아찔해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아이의 반 학생은 모두 23명. 그 중 흑인은 아들 데즈를 포함해 2명뿐이었다. 왜 자신의 아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방해막이가 되어야 하는지 서럽기만 했

아이의 무심하게 말을 이어갔다. "친구들 모두 죽고 나만 살아남는 것보다 차라리 친구들을 지키고 내가 죽는 게 나야."

엄마는 놀랐다. 한편으론 부끄러웠다고 한다.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아이에게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는 차마 가능할 수 없었다. 말문이 막혀 아이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없이 걷기

### 총격 대비 훈련서 '방패' 가 된 소년 이야기

다. 하지만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표현할 수는 없었다.

엄마는 차분하게 "누가 너보고 맨 앞에 서라고 한 거냐"고 물었다. 아이는 "아무도 앞에 서라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엄마는 다시 "그런데 왜 네가 맨 앞에 선 거냐"고 물었다. 아이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답했다. "내가 하겠다고 한 거야. 그게 왜?"

만 했다. 네가 따돌림을 당했을까봐 걱정했다고, 네 친구들을 오히려 미안하다고, 생각보다 세상은 더 따뜻한 것 같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백마디 말 대신 엄마는 아이의 손을 꺾듯 잡았다. 아마 아이는 엄마 마음을 다 읽었을 거다.

(미션라이프)

###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yahoo.com

### 매일가정예배

#### 월 실족하기 쉬운 세가지 함정(고전10:8-12)찬213장

우리의 신앙여정에 은혜가 따르나 유혹도 항상 따름을 알고 잘 대처해야 합니다. 사도는 상징 주의로 보여진 이스라엘 광야생활에 일어난 3가지 죄를 지적하며 벗어나기를 권합니다. 첫째, 음행의 죄(8) -하나님의 신실함이 깨어질 때 사람관계의 불신실인 음행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연합이란 명목으로 교회의 남녀관계에서 거짓을 제하고 진실본위로 행함으로서 모든 유혹의

울무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둘째, 주를 시험하는 죄(9) - 자기 위주의 삶은 사람은 물론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합니다. 셋째, 원망하는 죄(10) -말로만 주라고 하며 실제로 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불신앙으로 쉽게 나아가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늘 감사로 충만한 자가 진정한 행복이란 명목으로 교회의 남녀관계에서 거짓을 제하고 진실본위로 행함으로서 모든 유혹의

#### 화 이상승배의 유혹을 피하라(고전10:13-14)찬257장

이상승배는 제1계명을 범한 죄로서 신자의 모든 생각과 생활의 기초입니다. 한 마디로 신자는 이상승배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근본은 바로 이 죄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째, 감당할 시험만 허락됩니다(13).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기 백성에게만 약속된 것입니다. 둘째, 피할 길도 주십니다(13). 우리의 약

함을 아시고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때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자는 시험을 이기거나 다른 것에 목을 매면 실패합니다. 셋째, 이상승배의 일을 피해야 합니다(14). 이런저런 일 중 모든 죄의 뿌리인 이상승배와 싸우는 것이 신자가 항상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요한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요일5:21). 세상에서 물러오는 탐심과 싸워 나갑니다.

#### 수 귀신과의 교제를 조심하라(고전10:15-22)찬214장

이상제물을 먹는 일을 왜 사도는 경계했습니까? 첫째, 귀신과 교통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16-17). 성찬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상제물을 먹는 일은 귀신의 일에 참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귀신의 식탁에 참여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18-20). 이것은 모든 부패함의 시작입니다. 우리 속의 육과

그 생각은 언제나 이것으로 이끌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혼합신앙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21-22).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혼합신앙은 이미 마귀와의 타협이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주님만을 기쁘게 하려는 일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힘써서 우리 속의 육과 싸워나갑니다.

#### 목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10:23-33)찬278장

모든 일에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가리킵니까? 첫째, 자기유익을 구하는 자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23). 자기주의로 치우친 자율주의의 죄는 자기유익을 위해 살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있습니다. 둘째, 남의유익을 구하는 자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24).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자는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유익하게 하려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선한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25-29).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선한 양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듭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서 모든 일에 선악을 분별합니다. 남의유익 위주로 살아가는 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갑시다.

#### 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고전10:31-33)찬53장

사도의 본된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어떤 것이니까?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일에서부터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먹이나 마시는 기본단위에서 시작함이 큰 것에도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이고 사도가 따른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 혼란 속에서 우리의 목적을 여기에 두었는가를 항상 점검합니다.

#### 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유(고전11:23-32)찬284장

기독교 성례는 2가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중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기억함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는 왜 그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십니까? 첫째, 그의 죽음이 우리 죄를 사하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죽음은 그의 부활과 관련되었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 부활 없는 죽음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것은 성령강림과도 연관되었습니다.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은 그의 죽음을 근거로 일하시고 거기에 깊이 착박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아부인을 배우고 자기십자가 짐을 조금씩 배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 것도 구하지 않겠다는 사도의 삶은 성찬을 통해 다시 증거되며 모든 일을 오직 그의 죽음 위에서만 하십시오. 그때 교회는 감회하고 새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의 죽음을 자랑하십시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p>	<p><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p>	<p><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p>	<p><b>새이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p>	<p><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Tel: (02)2-2646-3191~3, (02)2-2646-3184</p>	<p><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82)2-990-9998, Fax: 3927-1008</p>	<p><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p>
<p><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p>	<p><b>승등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Tel: (02)732-4341~3, 팩스: (02)389-2235</p>	<p><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p>	<p><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기용 Tel: (82)2-842-1968, 팩스: (011)82-2-842-1968</p>	<p><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결 Tel: (02)418-0481, Fax: (02)422-0751</p>	<p><b>신촌교회</b> 담임목사: 박노훈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p>	<p><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www.anamji.or.kr Tel: (82)2-926-4508</p>
<p><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p>	<p><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9-4813, 331-284-7204</p>	<p><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신일권 Tel: (02)842-6881, Fax: (02)842-6882</p>	<p><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403-838)</p>	<p><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p>	<p><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p>	<p><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793-7740</p>



# 소그룹 통해 건강한 시스템 구축

## 리더십저널, 빌헬 목사가 말하는 '건강한 소그룹 만들기' 원리 소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것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설교와 예배가 살아 날 때 비로소 시작된다. 여기에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리더로 구비시켜 탄탄한 하부 구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교회 목회자가 의지가 굳세고 유능한 신자들이 섬기는 조직을 원한다면, 소그룹이야말로 바로 그런

조직을 만드는 데 아주 유용하다. 또 만일 지도자들이 다른 지도자들을 발굴해서 준비시키는 시스템을 원한다면, 소그룹은 바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만일 지도자들이 지체들끼리 서로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원한다면, 소그룹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 교두보를 구축하라

만일 여러분이 어떤 소그룹 사역의 지도자라면 목사든, 교회 직원이든, 아니면 그 일을 책임진 평신도이든, 여러분은 처음에 반드시 교두보를 구축해야 한다. 장차 소그룹 지도자가 될 사람들로 이뤄진 키잡이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이 키잡이 소그룹을 이끌 때 사용하는 방식을 이 미래의 소그룹 지도자들도 다른 사람들을 이끌 때 따라 하길 원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제대로 뽑는 것이요, 어떤 소그룹을 시작하고 싶은지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그룹의 구성원들을 뽑든지 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 가르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진 사람, 그리고 교회의 사역 철학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뽑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시간과 관심과 사람들을 이끄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는 장차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여러분의 집이나 편안한 장소로 초대해서 계획하는 바를 그들에게 이



### 유능한 신자 조직 원한다면

지도자 발굴 준비시키는 시스템 원한다면

지도자 및 지체들이 서로 책임 다하는 공동체 원한다면...

야기해야 한다. 왜 그들을 초대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왜 그들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러줘야 한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지향하는 소그룹의 모습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지닌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봐야 한다. 장차 몇 배로 늘어나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도와줄 그룹들을 시작하고 이끄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끔 지도도 준비할 것을 키잡이 소그룹에

요구해야 하며, 여러분은 이후 서너 달을 장차 소그룹 지도자가 될 이 사람들과 함께해야 할 것이다. 그 시간이 끝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영이 이끌 수 있게 되리라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 원형 그룹(prototype)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이 만든 그룹은 장래의 지도자들이 소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

우게 될 원형 그룹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룹을 이끌면서 성경 토론을 인도하는 것부터 지도를 이끄는 것까지, 그룹에 필요를 알아내는 것부터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본을 보이게 될 것이다. 또 키잡이 그룹의 지체들은 번갈아가며 그룹을 이끌면서 소그룹 지도의 실재를 익히게 된다. 아울러 그들은 함께 팀을 이뤄 외부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룹 전체의 지체들이 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이끌 것이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는 서로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키잡이 그룹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어떤 것도 참여를 통한 배움을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룹의 관심과 필요를 따르도록 하라

레스토랑에서는 종종 단골들을 초대해서 아침 메뉴판에 들어 있는 다양

한 음식들 가운데 '원하는 것을 골라 직접 아침 식단을 만들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방법을 여러분이 이끄는 소그룹에서도 시도해봐야 한다.

소그룹에 참여할 사람을 뽑기 전에 소그룹에서 할 내용이나 프로그램을 미리 정하기보다는 그룹의 참여자들을 뽑은 뒤에 그룹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정해서 그룹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서만 가능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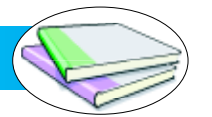
그는 2005년 설교자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은퇴하고 2013년 11월 95번째 생일 축하연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후 주로 자택에서 요양하며 지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타계에 대해 "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기독교인과 모든 종교가 그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트위터 계정에 적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카렌(부인)과 나는 급세미 미국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타계를 알고 슬픔에 빠졌다"며 "우리는 그레이엄 목사의 가족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빌리 그레이엄의 사역과 비할 데 없는 목소리는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편집부)

## 재 책 소개



# 시집 "주님만 바라보며"

저자 황동의 목사

황동의 목사(뉴욕 비전교회 담임)가 최근 시집 "주님만 바라보며"를 출판했다.

황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한다"며 "사역과 삶의 틈바구니에서 인생의 부분 부분을 거울로 보듯 밤잠을 지새고 새벽을 홀로 보며 지난날의 흐릿한 기록들을 찾아 뒤돌아보며 푸르던 그 때를, 단풍진 황홀하던 그 때를 미숙한 색깔로 연필질로 포장을 해보았다"고 권두에서 밝혔다.

또 황 목사는 "저녁노을 바라보며, 마지막 찬란한 빛을 발하는 찰나에 서서 가까이 다가오는 어둠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시적 고백이며 빛나는 언어의 향연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진정 그 분이 허락하신 그 길을 부끄럼 없이 걸어왔는가?' 질문하면서 노을 지는 언덕에서 가슴 황홀하며 오늘까지 동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적었다.

시집은 4부로 나뉘 제 1부 참외밭 향수는 고려산 기슭에 핀 진달래 외 20개, 제 2부 목사의 일상은 정원을 거닐며 등 15개, 제 3부 병상일지는 한 가위 밤중에 외 18개, 제 4부 저녁노을을 바라보며는 사모곡 등 14개의 시로 구성돼 있다.

마지막에는 시인이며 비평가인 흥분표 전 오산대학교 총장의 해설을 덧붙였다.

홍 시인은 "역동적 사역의 시적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쓴 해설에서 황 목사의 시에 대해 "첫째, 시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느끼는 행복감에 대한 표현이 매우 서정적이고 적절한 메타포를 구사하여 높은 예술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둘째, 시인의 시적 고백이 평생 목회자로 헌신한 역동적인 목회사역의 슬허가 되며 셋째, 시인의 시적 공간과 시간이 백설과 함께 겨울에서 봄으로 새해로 다가가는 은총과 소망의 시"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시집이 목회자로 시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역을 돌아보면서 철저한 존재 자각을 거쳐 주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목회자의 신앙 여정을 서정적인 시적 언어로 승화해 절절하게 드러낸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시적 고백이며 빛나는 언어의 향연"이라고 결론지었다.

저자 황동의 목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 도미, 1986년부터 목회자로 사역해왔으며 2008년에는 뉴욕교협회장, 2013년에는 뉴욕목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해외기독문학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총 142페이지, 펴낸 곳 창조문학사. ▲저자 이메일: dongikhwang@gmail.com

### (1면에서 계속)

47년 그가 인도한 첫 대중집회인 로스앤젤레스 전도대회를 통해 미국 전역에 알려졌다. 54년 영국 런던 전도대회를 성황리에 치르면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다. 50년 장성한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를 통해 수많은 전도대회를 후원했고 영화와 라디오, 텔레비전 전도 프로그램으로 복음전도에 힘썼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참석자는 전 세계에서 2억 명을 넘었다.

그레이엄 목사는 복음주의 신앙의 근본 요소인 성경의 권위에 초점을 맞췄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헌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복음전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교파들과 연합을 시도했다. 이 시도는 74년 150여 개국 복음주의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평신도 2,700명이 스위스 로잔에 모인 로잔대회로 결실을 맺었다. 이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복음전도와 구원, 회심, 대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고수하자는 로잔언약이 발표됐다.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중심인물인

그레이엄 목사는 한국교회 부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52년 한국전쟁 당시 방한해 서울과 부산에서 집회를 가졌고 1956년에는 8만 여명의 기독교인이 모인 가운데 복음 집회를 가졌다.

1973년 한국 개신교는 분열을 딛고 연합해 대규모 복음주의 집회인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5일 동안 110만 명의 인파가 모인 이 전도대회는 한국 개신교 대부흥의 결정적인 사건이자 한국 교회사를 바꾼 한 장면으로 기록됐다.

당시 통역을 맡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메시지를 더 감동적으로 전달했다는 평을 받아 한국 교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80년에도 대규모 군중이 모인 가운데 설교를 했고 1984년 열린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에도 참석했다. 특히 1991년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복음 집회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해 세계 기독교 집회사상 최고 대중기록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는 1992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94년 1월에는 북한에서 선교집회를 열었다.

그레이엄 목사가 김일성의 초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레이엄 목사의 장인인 벨스 벨 선교사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과 어머니 강만석을 중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또 그레이엄 목사의 마지막 집회가 2005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뉴욕 프레스 메도우 코로나 파크에서 열렸을 당시 한인교계도 적극 참여했다. 이 집회에는 다민족 23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마지막 날 축도는 분지 발행인 장영춘 목사(원주교교회 원로)가 맡아 뉴욕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한평생 외길을 걸었던 그레이엄 목사는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천한 이 시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생전에 "내 일생의 유일한 목표는 사람들이

# 피종진 목사 초청 3월 국·내외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 ▶ CBS 위성TV 방송 TV 부흥강단 - 매주 주일 오후 5:30 인터넷 : www.cbs.co.kr
- ▶ GoodTV 방송 생명의 샘터 - 본방 : 매주 수요일 오전 11:30, 재방 : 매주 목요일 오전 1:00 인터넷 : www.c3tv.com

##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 : 010-5255-7777, (02)3411-9191, FAX : (02)401-7770  
E-mail : Godbless3377@gmail.com

## 제211차 해외성회(211st Overseas Assembly)

- |              |  |                 |
|--------------|--|-----------------|
| 2(금) 오전      | 미국(U.S.A) 남가주 목사회 세미나<br>장소: LA 로렉스호텔<br>주최: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샘 신 목사) | ☎(213)215-6021  |
| 3(토) 오후      | 미국(U.S.A) 남가주 한인 & 히스패닉 영적각성선교대회<br>장소: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 ☎(213)749-4500  |
| 4(주) 오후      | 미국(U.S.A) 남가주 한인 3.1절 기념연합성회<br>장소: LA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            | ☎(213)381-2202  |
| 8(목)         | 미국(U.S.A) 아틀란타 아가페선교교회(강진구 목사)                                   | ☎(678)642-7526  |
| 8(목)-11(주)   | 미국(U.S.A) 아틀란타 예수사랑선교교회(문길원 목사)                                  | ☎(770)403-6898  |
| 11(주) 오전     | 미국(U.S.A) 아틀란타 영락교회(전재창 목사)                                      | ☎(404)421-0556  |
| 12(월)-13(화)  | 미국(U.S.A) U,K,P,C 동남부노회 연합사명자부흥회(대회장 박성은 목사)                     | ☎(404)916-6764  |
| 13(화) 오전     | 미국(U.S.A) 아틀란타 화요연합기도성회<br>주최: 크리스찬타임즈                           | ☎(404)625-1212  |
| 19(월) 오전     | 서울목회자카페(대표회장 김재용 목사)   | ☎ 010-5257-0374 |
| 19(월)-21(수)  | 군산 에스겔기도원(원장 김양선 목사)   | ☎ 010-8924-4927 |
| 22(목) 저녁     | 성남 영광교회(전옥란 목사)  | ☎ 010-2445-1691 |
| 24(토) 오전     | 광명 예수생명교회(주준순 목사)  | ☎ 010-5257-0374 |
| 26(월) 오전     | 여의도순복음양평기도원(원장 이태근 목사)   | ☎ (031)772-9113 |
| 26(월)-28(수)  | 대전 주님의교회(이금숙 목사)   | ☎ 010-7511-7547 |
| 30(월)-4.1(주) | 서울 사도교회(김희준 목사)  | ☎ 010-8633-0190 |

